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81호

Thursday, August 8, 2024 A

전국 한인 유권자 110만명... 민주당원 67%

퓨리서치 센서스·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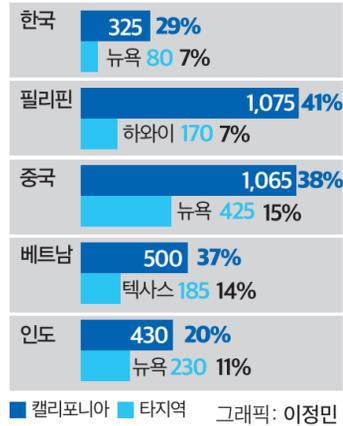
전국 한인 180만·전체의 8%
25%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중
10명중 7명 "역이민 계획 없다"
기독교인 59%·무교는 34%

각종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인들은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퓨리서치센터는 연방선거 2022년 통계와 한인 1146명 등 아시아인 7006명을 대상으로 2022년과 2023년 시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국 속 한인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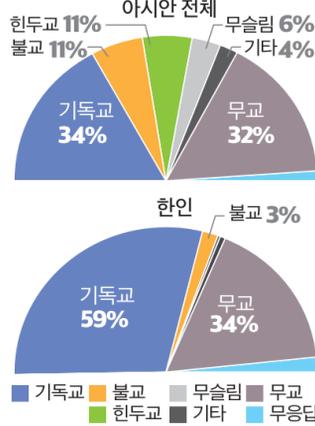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1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아시아인 인구의 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인 혼혈 인구는 제외됐다. 지난해 연방선거국이 발표한 2022년 ACS 통계에서 혼혈을 제외한 한인 인구가 150만1587명으로 조사됐던 것에 비해 약 30만 명이 더

거주지 분포 (단위:1000명)



캘리포니아 타지역 그래픽: 이정민

종교인 비율



아메리칸 드림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답한 한인 비율도 25%로 파악됐지만, 전체 아시아인(27%)보다는 낮았다. 인종별로는 중국계·인도계가 각각 23%로 한인보다 적었지만, 일본계의 경우 31%, 베트남계는 30%로 나왔다.

또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들의 66%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Korean)' 또는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아시아 전체로 볼 때 본인의 민족적 배경을 소개하는 경우가 52%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한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뜻이다.

반면 자신의 정체성을 '미국인(American)'이라고 대답한 한인인 9%에 그쳤으며, 25%는 비아시아인들에게 문화적 또는 종교적 관습 등을 숨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한인 응답자의 10명 중 9명(86%)은 한국을 좋아하지만 72%가 한국어의 역이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별 선호도는 전체 한인의 67%

가 민주당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아시아인 전체 평균(62%)보다 많다. 인종별로는 필리핀계와 인도계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계가 56%, 베트남계는 42%로 파악됐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한인(28%)은 베트남계(51%), 중국계(38%), 필리핀계(31%), 인도계(29%)에 이어 가장 낮았다. 전체 아시아인 공화당원 비율은 34%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미국 내 한인 인구의 62%인 110만 명이 투표자격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소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한인 인구를 의미한다.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인은 필리핀계(260만명)였으며, 인도계(210만 명), 베트남계(130만 명) 순이다.

종교 조사에서는 한인 10명 중 6명(59%)이 기독교인으로 파악됐다. 이는 아시아인 전체 기독교인 비율(34%)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한인 기독교인 중 34%는 복음주의 개신교에 소속됐으며, 12%는 비복음주의 개신교, 11%는 가톨릭에 속했다.

장연화 기자

트럼프 "해리스·윌즈 공산주의자...민주 투표 유대인 뇌검사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조지아주 소집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팀을 이뤄 대선에 나서게 된 것과 관련 "그들은 미국이 즉시, 아니 더 빨리 공산주의가 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색깔 공세'에 나섰다.

특히 해리스가 전날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윌즈에 대해선 "너무 진보적인 사람으로 충격적"이라며 "나는 정말로 신이 난다"고 했다. 해리스가 윌즈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이 자신의 선

거 전략에 도움이 될 거란 주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윌즈로 진용을 갖춘 민주당에 대해 "내 반응을 묻는다면 '민기치 않는다'는 말로 표현하겠다"며 "윌즈는 (해리스의) 스타트 버전이자, (진보진영의 상징적 인물) 버니 샌더스와 동급이거나 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급진적인) 팀은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미국

의 안보를 비롯한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윌즈에 대해선 "트랜스젠더에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다. 윌즈가 과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자원과 관련한 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 전날 윌즈가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부자 친구들의 감세만을 고민할 것"이란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선 "(트럼

프 1기)가)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성공했던 행정부"라며 "내가 항상 마라라고에 만났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또 유력하게 거론되던 조지 서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발탁되지 않은 것과 관련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친팔레스타인계 지지층 때문에 유대인인 서피로 카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당장 두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 5면 '트럼프'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아가 팔찌, 목걸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곱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티메프·증시, 민생 2연타... 여·야·정 대화의 장으로 떠올랐다

여야 "이견 적은 민생법안 처리" 용산 "영수회담, 한동훈 포함" 무능국회 비판 민심이 정쟁 제동 순직해병특검법 등 갈등 불씨 여전



김상훈 국민의힘(오른쪽)·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민생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악화일로로 걷던 정치권에서 7일 협치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했다.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능 국회'에 대한 피로감, 여기에 경제 비상상황까지 겹치자 여야 모두 정쟁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촉구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협의하자"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를 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면 더 좋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건

여야 합의처리 가능한 주요 민생법안 및 현안	
복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간호법 제정안 추경호(국민의힘),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등 법안 발의
복지	육아휴직 연장 등 저출생 대책 서범수·조지연(국민의힘), 남인순·황정아(민주당) 등 발의
복지	결혼 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박정하(국민의힘), 안도걸(민주당) 등 법안 발의
복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정동만(국민의힘), 박주민(국민의힘) 등 법안 발의
경제	전세사기특별법 권영진(국민의힘), 복기왕(민주당) 등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 중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후속 조치 송언석(국민의힘), 천준호·김남근(민주당) 등 법안 발의
경제	반도체 지원 'K칩스법' 고동진·박충권(국민의힘), 김태년(민주당) 등 법안 발의
경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김석기·김성원(국민의힘) 등 법안 발의
사회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정점식(국민의힘), 서영교(민주당) 등 법안 발의

강한 여야 관계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한 것에 더해 공식적으로 "윤석열-이재명" 회담을 요청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위기 돌파가 어려워 여야가 상황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의도발(發) 협치 훈풍에 대통령실도 반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논의해 볼 것"이라며 "다만 형식은 한 대표까지 참석하는 3자 회동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생을 위해 생각과 마음을 모아 정책 협의를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회담) 절차나 격식은 차후에 따져도 되지 않나"라고 반응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모습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개원(6월 5일) 이후 두 달간 여야는 극

한 대치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 기간 7개 법안(순직해병특검법·방송 4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예고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없었다. 극도로 경색된 정국에서 여야와 대통령실이 같은 날 협치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내자 "정국의 활로를 열 여건이 조성됐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기류가 달라진 건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및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 정치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물도 내지 못한 무능한 22대 국회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이 등 돌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협치론을 키웠을 것"이라고 했다.

시기적으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이어 주식시장 폭락으로 2연타를 맞은 경제 상황이 역설적으로 협치의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생에 빨간불이 켜진 긴급 상황이 정치권을 동시에 대화의 장으로 밀어냈다"(여권 관계자)는 것이다. 여야 상충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초기 티메프 사태나 전기요금 등 민생 이슈 해결의 '속도전'을 부각하고 있지만 "민주당 협조 없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폐

기 법안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가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특검법과 각종 탄핵안을 요란하게 추진했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내부 회의론이 상당했다"며 "종일 강경 모드인 원내 지도부에 대한 의문도 커지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첫 회동을 갖고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장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 중 범죄 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장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 간호법 제정안 등을 거론하며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 처리하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날 양측은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한다. 이날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상설 협의기구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21·22대 국회에서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두 번 폐기됐던 순직해병 특검법을 8월 또다시 발의한다. 민주당이 버리는 '2특검 4국정조사'도 협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당은 "협치 파괴"라고 반발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 취임 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전격 영수회담이 성사돼도 '윤석열-이재명' 2인 회담 일지,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3자회담이 될지는 미정이다. **손국화·박태인·이창훈 기자**

금투세 놓곤 이견 확인... 진성준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민주당 정책위의장)

용산 "금투세 폐지 국회서 논의" 진 "도입 땀 개미 피해? 근거없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회동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이견을 확인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연일 주장한다. 7일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공지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

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

장과 상견례 후 "금투세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진 의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금투세 강경파'다. 최근 국내 증시 폭락과 맞물린 진 의장의 사무실엔 주식 투자자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블로그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

하겠다" 등 항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그 전에는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했다"며 "그걸 폐지(완화)하는 대신 이익을 냈을 때만 세금을 내자고 바꾸는 것"이라고 금투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금 물리니까 투자자가(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데, 다른 나라는 금투세가 없다. 금융선진국도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득이 날 거 같으면 세금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일부 완화를 시사한 것을 두고선 진 의장은 "정무적으로 국민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워싱턴 날씨 (°F)

9일(금) 81~71	12일(월) 86~68
10일(토) 87~67	13일(화) 86~68
11일(일) 86~65	14일(수) 87~69

8월 8일(목) 80~7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저렴! 빠른! 확실! 믿고!

SOLD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MD 총기규제법률은 “위헌”

MD 연방지방법원 판결 “연방수정헌법 2조 위배”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023년 제정된 메릴랜드 총기안전법률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폭넓게 규정한 연방수정헌법 제2조를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적법하게 총기를 숨겨서 휴대할 수 있는 퍼밋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장소 등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조지 리셀 주니어 판사는 모두 세가지 범조항이 특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식당 등 알콜 소비 장소에서는 총기를 숨겨서 휴대할 수 있는 퍼밋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입이 금지된 조항과 사유지 혹은 타인 소유 사유 빌딩에 소유주의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반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 공공 시위 장소로부터 1천 피트 이내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위헌

이유로 거론됐다. 하지만 의료시설에서의 총기 휴대 금지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메릴랜드 총기안전법률은 2023년 5월 16일 웨스 무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됐으나 총기 옹호 단체들이 다음 달인 9월 연방지방법원에 법률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사실상 이번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총기휴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총기법률에 대해 위헌 판

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연방수정헌법 제2조 재단 등 총기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웨스 무어 주지사 와 민주당 정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극좌적인 민주당 정권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자유권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소와 상고를 통해 마지막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소법원 3인 합의 재판부는 메릴랜드가 2013년 제정한 살상용 무기 매매 금지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는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의 샌디 후크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사망한 이후 AR-15 소총 등 살상용 소총 등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제정했었다.

김옥채 기자

2024년도 재미한인장학기금 수상자 발표 “워싱턴 지역 13명 학생 포함”

재미한인장학기금 우수 장학생 노종현, 김서훈 외 총 67명

주미 대사관이 운영하는 재미한인장학기금(기금운영위원장 조현동 주미대사, 이하 KHS)의 2024년도 미국지역 장학생 명단이 발표됐다. 워싱턴 지역 13명을 포함, KHS 장학생으로 선정된 인원은 전국 총 67명으로 확인됐다.

올해 KHS 우수 장학생 2명에게는 주미대사 명의의 장학증서와 5,000달러의 장학금과 우수장학생 4명에게 3천달러가 수여되며, 그 밖의 학생들에게는 주미대사 명의의 장학증서와 1인당 1,500달러 장학금을 10월 초순 경 자신이 지원했던 공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KHS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투철한 동포 학생 및 유학생들중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이들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미국의 주류사회는 물론 동포사회와 조국의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출연한 290만불의 투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67명 내역과 명단은 주미 대사관 홈페이지 (<http://usa.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02-939-5681, 5679(주미대사관 교육관 강병구)

김윤미 기자

열대성 폭풍 ‘데비’ 비상준비태세 명령

VA-MD 주지사 철저 대비 당부

열대성 폭풍 ‘데비’가 워싱턴 지역에 다가오면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만전의 준비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데비가 워싱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의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주지사 비상사태 명령에 따라 주정부는 지역정부에 더 많은 긴급 대비 자원을 배분하게 됐다.

클린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대규모 단전사태와 물류 이동 불능 사태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영킨 주지사는 “모든 버지니아 주

민과 외부 방문객은 지역정부의 긴급사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가족과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방기상청(NWS)은 9일(금) 밤까지 데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풍과 더불어 폭우 사태로 인한 저지대 침수 사태 등을 경고했다. 당국에서는 7일까지 폭우, 9일까지는 홍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옥채 기자

H마트, ‘경상북도 특판전’ 개최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경상북도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경상북도 특판전’을 개최한다.

본 특판전은 오는 8월 9일부터 22일까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전 매장에서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윤지영 농국수세로부터 남원 산초 추어탕, 경상북도의 맛을 담은 유과, 감말랭이, 울릉도 삶은 부지갱이 등 까다롭게 엄선한 경상북도의 다양한 제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각 지역 매장으로 하면 된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지역 전세계 생활비 지출 7위

시애틀, LA, 시카고보다 많아

워싱턴메트로지역 살인적인 물가로 인해 생활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세계 생활비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넘베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워싱턴 메트로 지역이 전세계적으로 7번째

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으로 선정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 렌트비와 모기지 페이먼트, 식품 가격, 식당 음식 요금 등 실물 지수 외에도 지역별로 특화된 구매력을 비교분석했다.

워싱턴지역은 주택렌트비가 7위, 식당 음식 요금이 8위, 식품 가격이 13위, 지역별 구매력이 29위를 차지했

다. 보고서는 뉴욕시의 지수를 100%로 고정시킨 후 지역별로 가감한 지수를 발표했는데, 워싱턴 메트로지역은 82.5%였다.

1위는 스위스 취리히(101.7%), 2위는 스위스 제네바, 3위는 뉴욕시, 4위는 샌프란시스코, 5위는 보스턴, 6위를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7위는 워싱턴DC, 8위는 시애틀, 9위는 LA, 10위는 시카고였다.

김옥채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스시 식당</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의 \$218,000</p>	<p>디시 유명 델리</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의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상가</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식당 자리</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사무실</p> <p>애너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상가</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p>	<p>상가</p> <p>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p>
<p>창고</p> <p>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p>	<p>사무실</p> <p>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콘도</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p>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뉴저지판 '양용 사건' 사망자 신원 밝혀져

포트리 거주 26세 빅토리아 이 경찰 대처 적절 여부 조사 예정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포트리 피나클 아파트서 발생한 충격 사망 사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6일 멧 플레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피해자는 빅토리아 이(26)라고 발표했다.

앞서 주 검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달 28일 메인스트리트 피나클 아파트서 경관의 총격으로 인해 가슴에 총탄을 맞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누이가 칼을 들고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911에 신고했다.

오전 1시 25분께 경관이 출동해 이씨 외에도 한 명의 여성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고, 경관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아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그러나 이씨가 칼을 들고 경관에게 다가왔고, 현장의 토니 피킨스 경관은 결국 발포했다. 이씨는 잉글우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오전 1시 58분께 숨졌다.

이에 따르면 경관 대응 후 불과 33분 만에 이씨가 사망한 것이라, 현장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9년 제정된 뉴저지 법에 따라 주 검찰은 사건 현장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 본지 질의에 주 검찰총장실 형사사법부서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 후 조사중인 사안"이라고 했고, 포트리 경찰서 형사국 관계자도 유사한 답변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발표했던 뉴저지한인회 등은 아직 피해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유족과의 접촉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주류 기업에 한국어 강좌 개설

세종학당, 넥슨법인에 강좌

주류 회사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다. 한국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일 LA소재 미국 거점 세종학당(사무소장 안형미, 이하 거점 세종학당)은 한국 대표 게임사 넥슨(Nexon) 미국 법인인 넥슨 아메리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기업체에서 세종학당의 체계적인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점 세종학당 측은 넥슨 아메리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3일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면 넥슨 아메리카 임직원은 사내에서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특히 거점 세종학당은 한국어 전문 교원을 파견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거점 세종학당 측은 "한국어 교육 수업에 효과적이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풍부한 한국 문화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어 강좌는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입문과 말하기 수업으로 진행된다.

넥슨 아메리카 임직원들이 업무처리와 한국어 강좌 수강 병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도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거점 세종학당은 찾아가는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기업체 직원들이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고,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형미 거점 세종학당 사무소장은 "기업 임직원 대상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알리기를 통해 문화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김형재 기자

폭염, 생산성·소비 등 경제 타격

"글로벌 성장률 0.8%p 하락"

세계 곳곳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가량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소비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서다. 해마다 심화하는 폭염이 매년 3분기에 글로벌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계절적 요인으로 아예 고착화할 거란 지적도 있다.

5일 기후분석단체 버클리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구 연평균 기온이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90%를 넘는다. 해수면 온도 상승, 강력한 고기압 등으로 폭염이 두드러지

면서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당장 기업 산출량이 줄어든다.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노동자 건강 보호 필요성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구 온도가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2030년 노동시간 감축 규모를 풀타임 일자리 개수로 환산하면 8000만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폭염이 하루 발생하면 생산 현장에선 0.5일 동안 파업이 발생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시장 단축 효과가 생긴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가계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다.



폭염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끌어내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더위에 아마존 배달 기사도 소포를 나르고 있다. [로이터]

노동시간이 줄어 근로소득 총액이 축소하는 데다 냉방·의료비 지출이 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폭염이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도 있다.

오효정 기자

엔비디아 젠슨 황 폭락 직전 주식 매각

"운이 좋았다" ... 3억2270만불 22일 거래일 동안 일 12만주씩



기업 내부자가 특정 가격이나 특정 시기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증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사진) 최고경영자(CEO)가 증권시장이 폭락하기 전인 지난달 3억2270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했다.

6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젠슨 황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엔비디아 주식 264만주를 매도했다. 매도는 22일 거래일 동안 하루 12만주씩 균등 매도됐다. 지난 6월 매도한 금액까지 합하면 거의 5억 달러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젠슨 황이 지난 3월 채택된 10b5-1에 따라 주식을 매각했으며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10b5-1 매매 계획은

매도가 이미 계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나스닥 100지수가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이날 6.4% 하락한 것을 포함해 지난 3거래일 간 14%나 내렸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14억 달러어치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해온 황 CEO는 이번 달에도 주식을 내다 팔 예정이다.

젠슨 황은 올여름 실행한 주식 매각을 포함해 2020년 초부터 개인적으로 약 14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배재성 기자

캔디스 조 LA시 커미셔너 연임

LA시 인간관계위원회 커미셔너인 한인 캔디스 조(사진) 변호사의 임기가 4년 연장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캐런 베스 시장에게 의해 해당 커미셔너로 임명됐는데 지난 7월29일 시장실의 연임 결정으로 2028년 6월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그는 하버드(정부학)와 조지타운대학교(공공정책)를 거쳐 콜롬비아 법대를 졸업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리처드 더빈 연방상원의원

의 법률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그는 뉴욕 시검찰로 자리를 옮겨 9년 동안 활동했다.

그는 2020년 검찰을 나와 뉴욕에서 아태계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 LA로 활동 무대를 옮겨 인권옹호 단체인 아태계 지위균등연합회(AAPIEA)와 아태계 대상 증오범죄 방지연합 등에서 활동해왔다.

최인성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한 푼이라도 절약”...디지털 쿠폰 인기

10불 음식 5불에 구매도 “사용 증가” 44%나 급증
중간소득층서 크게 늘어

#. 버지니아 애난데일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씨는 얼마전부터 '맥도널드 앱'을 사용하고 있다. 인플레로 가격이 올랐지만, 앱을 사용하면 세트메뉴를 6달러 정도에 매일 구입 가능하다. 각종 디저트 류도 반 값에 즐길 수 있다.
#.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주부 장모씨는 아마존에서 33.99달러짜리 무선 구강세정기를 디지털 쿠폰 코드 2개를 사용해 개당 10.76달러에 구매했다. 보통 쿠폰사용이 1회로 제한되지만 이번에는 중복사용이 가능해

가족용으로 4개를 주문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쿠폰 덕분에 정가 구매 시보다 100달러 가까이 절약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쿠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매연맹(NRF)이 성인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PIA 월간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성인 4명 중 1명꼴인 26%에서 쿠폰 사용빈도가 증가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6일 보도했다. 지난 2021년 7월 설문조사 결과인 18%보다 44%가 증가한 것으로 NRF는 연간 3만5000달러에서 7만4000달러의 중간소득층에서 쿠폰 사용이 크게



판다익스프레스 모바일사이트에서 디지털 쿠폰을 적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워로치에 따르면 그로서리 체인점 알벗스 앱(For U Rewards)은 25달러 구매 시 5달러 할인을 비롯해 제품별 디지털 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용품 체인점 타깃 앱(Target Circle)도 다양한 쿠폰을 수집할 수 있어 할인가에 쇼핑할 수 있다.
매장 및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코드는 쿠폰캐빈(CouponCabin)과 같은 쿠폰 앱이나 구글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상용 고객들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 회원에 가입하는 것도 절약에 도움이 된다. 회원들

만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이나 디지털 쿠폰, QR코드 등이 제공되며 포인트 적립으로 무료 제품이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정 할인 프로모션이 있는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스캔하면 리워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보타(Ibotta)와 같은 앱을 통해서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소매점들에서 QR코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 사기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격 비교·쿠폰 앱스마티(Smarty)의 바이핀포월 대표는 “출처가 불분명한 코드는 사거나 멀웨어 설치 가능성이 있어 스캔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윤미, 박낙희 기자

▶1번 '트럼프'에서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캠프는 서피로가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2주 이상 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었다”며 “(월즈가 지명된 5일) JD밴스의 필라델피아 유세 때 서피로를 ‘사기꾼’ 등으로 묘사한 전단지 가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리스가 서피로가 아닌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면서 트럼프가 준비했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밴스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이날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주에서 소규모 유세를 개최했다. 전날에 이어 ‘해리스 팀’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다니며 벌이는 시위성 맞불 유세 성격이 강하다.
밴스는 이날 오전 해리스의 비공개 미시간 일정에 앞서 먼저 미시간에 도착해 지역 언론들과 비공개 간담회 형식의 유세를 열어 “해리스가 남부 국경에서 한 일에 대해 화나 난다”며 해리스의 국경정책을 비판했다. 직후엔 즉각 해리스의 대규모 유세가 예정된 위

스콘신으로 이동해 유사한 형식의 유세를 이어갔다.
위스콘신 공항엔 두 진영의 전용기가 나란히 착륙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밴스는 당초 해리스가 이번 주말까지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위스콘신·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 등 7개 경합주를 순회하는 일정 대부분을 따라다니며 맞불 유세를 펼칠 계획이었다. 그러다 남동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 양측은 이날 목요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와 금요일 조지아주 유세를 연기했다.
한편 해리스 선대위는 이날 월즈 부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개한 이후 24시간동안 3600만 달러(약 495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선대위 측은 “선대위 가동 이후 최고의 모금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NYT는 8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된 해리스의 이날 위스콘신 유세장엔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유세장 진입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대선 진용을 갖춘 해리스와 월즈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당뇨병 환자 고통

#. “오젠폍은 보험 없어도 괜찮다. 일단 오면 현금 1000달러로 처방 가능하다. 진료비는 별도다. 당뇨가 없어도 우리 선생님이 알아서 해준다.” (버지니아 지역 모 내과)
#. “근처 내과가 많으니 아무 곳이나 가서 선생님한테 살 빼려고 당뇨치료제가 필요하다고 하라. 기록에 문제 없게 알아서 다 해준다.” (버지니아 지역 약국 A 약사)
#. “당뇨치료제 종류는 많지만 비만치료제로 유명세를 타며 가격이 오르고 수급이 안 돼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불법 비만치료제 단속이 늘자 이전 그유통 경로도 링크가 막혔다.” (한인 약국 판매원)
당뇨병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사진) 약물들이 비만치료제로 오남용되며 실제 약이 필요한 당뇨 환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한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시니어들 사이서 유행하는 당뇨병 치료와 관



련해 제2형 당뇨치료제로만 승인된 오젠폍 등의 고비용 약물 처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비만치료제로 입소문을 타 비용이 오르고 약이 품귀 현상을 빚자 당뇨 환우의 약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 600달러대로 형성된 가격 대비 훨씬 높은 1000달러에 일선 약국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약이 절실한 시니어 당뇨 환우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
70대 한인 헬레나(가명) 씨는 “시니어들에게는 약이 필요해도, 달라는대로 약을 주는 의사를 찾기도 어려운 마당에 처방약이 남용되면 되겠다”며 “(비만치료제 처방) 의사는 건강에 안 좋다고 비만을 싫어하고 살집이 있어 보이는 환자엔 살을 빼라고 아주 세게 주문하더라”라고 했다.
A약국 판매원은 “약을 구하기 어려워서 시니어들끼리 리스트도 공유하곤 하는데 그걸 비만치료제로 처방해

도 되는지 걱정”이라며 “지인은 C약국에서 가서 살 뺐다고 설명하고 처방전 없이 약을 샀더라”라고 귀띔했다.
한인타운 거주 70대 한인 정모 씨는 “또래중에 당뇨 없는 사람이 없다”며 “유명 약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 안 준다. 우리는 비싼 약은 생각도 못하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제일 싼 약을 달라고 한다”고 했다.
반면 절대 살 빼는 용도로는 팔지 않는다는 이도 있다. 약국 약사이 모 씨는 “약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살 빼는 용도로는 주지 않는다”며 “오젠폍은 한 달 1000달러라는 큰 현금이 드는 건 물론이고 신장 결함 등의 장기적 부작용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의사협회저널(JAMA)은 세마글루타이드 처방이 미 전역서 폭증한 가운데 70%는 오젠폍이었다며, 비만치료제로 오남용돼 당뇨 환우들에게 약이 공급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용, 강민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경제 연착륙 성공 가능성 35~40%”

JP모건 다이먼 회장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7일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을 종전과 같은 35~40% 정도로 본다는 미 경제가 연착륙보다 나쁜 시나리오로 그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다이먼 회장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시장이 침체 확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이전에 말했다 때와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며 이치럼 말했다.

다이먼 회장은 앞서 지난 4월 인터뷰에서 시장이 미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70% 정도 수준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자신은 그 절반 정도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 전망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며 “지정학적 긴장, 주택, 재정적자, 가계지출, 양적 긴축, 대선 등 모든 것들이 시장을 당혹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현재 침체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이먼 회장은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상승률을 2% 목표

로 되돌릴 수 있을지에 “조금 회의적”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이먼 회장은 앞서 미국 경제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한 바 있다.

한편 다이먼 회장은 차기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자리를 사랑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 시 재무장관 후보로 다이먼 회장을 고려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민간 부문은 전문가들의 거대한 보고이자 미국 일자리의 85%를 만들어낸다”며 차기 정부 내각에 민간 인사가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권자 70% ‘월즈가 누구야?’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낮은 인지도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첫인상을 만들지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6일 미국 약시오스가 보도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월즈

월즈 주지사는 최대 경합주 출신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나 우주비행사였던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리조나) 등 쟁쟁한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발탁됐다.

월즈 주지사는 미네소타에서 연방하원의원으로 6선을 했고 2018년 미네소타 주지사로 당선돼 2022년 재선된 베테랑 정치인이지만 전국적 인지도는 미미하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월즈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 유권자의 70%가 ‘잘 모른다’·‘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경쟁후보였던 셔피로 주지사나 켈리 상원의원의 경우 같은 응답 비율이 각각 51%, 50%인데 비하면 일반 유권자들에게 월즈 주지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월즈 주지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공화당은 월즈 주지사의 진보적 정치 행보를 ‘극단적’이라고 규정하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월즈 주지사는 보수적인 중서부 지역에서 당선됐지만 노동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런 점을 두고 그를 ‘위험한 진보 극단주의자’로 정의했다.

실제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이날 필라델피아 선거 행사에서 월즈 주지사를 “미국 정부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 좌파 급진주의자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또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을 당시 월즈 주지사의 행보를 다시금 거론하며 표적으로 삼았다.

공화당은 당시 항의 시위가 폭력적이었는데도 월즈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늦게 투입하는 바람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항해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교 미식축구부 감독(coach)이었던 월즈 주지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그를 ‘월즈 감동남’ 이미지를 내세웠다.

특히 1990년대에 성소수자 학생들의 요청으로 ‘동성-이성애자 연합’ 동아리의 고문교사를 맡았던 일화를 부각하며 학생 보호에 앞장선 ‘참스승’이자 ‘롤모델’로 정의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월즈 부통령의 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월즈는 미식축구부 감독이 (성소수자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학생들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는 학교를 모든 이에게 안전한 장소로 만들었다”고 추켜세웠다.

WHO, 엠폭스 확산에 보건비상사태 재선언 검토

최근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문가를 소집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사진) WHO 사무총장은 7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 보건규약 긴급 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소집해 엠폭스에 대한 조언을 얻겠다고 밝혔다.

국제 보건규약 긴급 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역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엠폭스는 2022년 10월 PHEIC가 선언됐다가 10개월 만인 지난해 5월 해제됐다. 일반 감염병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작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이 병에 걸리면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촉 과정에서 매개되는 감염 사례가 대다수라는 특징 때문에 질병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그에 따른 질병 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작년 5월 유럽과 미주 등지로 번졌던 엠폭스는 잦아든 반면 또 다른 하위계통의 엠폭스가 작년 9월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이 계통은 올헤에만 아프리카에서 1만1천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45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번지는 중이라고 WHO는 전했다.

동성에 성향의 성인 남성 감염률이 높았던 작년과 달리 어린이 환자가 속출한다고 WHO는 부연했다. 엠폭스는

체액이나 피부 접촉, 침방울 등을 통해 전파된다.

이날 WHO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이어지는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로 알려진 폴리오 바이러스가 최근 검출됨에 따라 백신 100만개 이상을 몇주에 걸쳐 가자지구로 보낸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달 말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지역 등지의 폐수 샘플에서 폴리오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쟁이 격화하고 위생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WHO는 가자지구에 감염병 확산 위험을 경고해왔다.

WHO는 전날 코로나19 발병 현황을 브리핑하면서 언급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WHO 측은 수개월간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파리올림픽에서도 참가 선수 최소 40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날 추가 자료를 통해 “최소 40명이 코로나19 또는 기타 호흡기 질환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수정했다.

“하이에 살해, 갈등 키우는 흉악한 행위”

이슬람협력기구

이슬람협력기구(OIC)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이에가 이란에서 살해된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AFP, 로이터 통신이 7일 보도했다.



OIC 회의

OIC 의장국인 감비아의 마마두 탕가라 외무장관은 이란의 요청으로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하이에 피살 사건을 가리켜 “지역(중동) 전체 긴장을 고조시켜 광범위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흉악한 행위”라고 말했다.

탕가라 의장은 “주권과 영토 보전은 국제 질서를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어기면 중대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외무장관 대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합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하이에가 폭사한 이후 자국이 공언해온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시사한 발언이다.

알리드 알쿠라이지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은 하이에 암살로 이란의 주권이 노골적으로 침해당했다며 “사우디는 그 어떤 주권 침해나 내정 간섭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슬람국가들이 모인 국제기구 OIC에는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연맹 회원국과 이란,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 57개국 이 가입돼 있다.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 빌딩 3층

마이클 장

주택용자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SUMMER SPECIAL

AUG. 8th - AUG. 15th, 2024

강/력/추/천

실속가득 · 알뜰세일

Lotte Plaza Market Summer Big Saving Special



ZER
해바라기씨유
Sunflower Oil

~~\$14.99~~ \$9.99
4L



Roshni
생땅콩
Raw Peanut

~~\$5.99~~ \$3.99
48 OZ

GRAND OPENING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64

Sterling, VA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6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630 Farmstead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don, VA
410 Elden Street
Her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6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802 Wink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관심 품종 오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엔비디아에 맞설 자... '오일머니'를 잡아라

AI칩 도전한 글로벌 스타트업들
오일머니 낙점받은 곳들만 생존

'HBM 없는 칩' 개발한 그로크에
중동자본 이어 삼성도 돈 넣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첨단 인공지능(AI) 칩 제조를 맡긴 미국 반도체 스타트업 그로크(Grok)가 블랙록·시스코·삼성전자 등에서 88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 회사는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칩 대량 판매 계약을 맺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독점 철용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오일머니의 낙점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살아남아 대항마로 커가는 모양새다.

7일 조나단 로스 그로크 최고경영자

(CEO)는 중앙일보에 6억4000만 달러(약 8800억원) 시리즈 D 투자 유치를 밝히며 "내년 1분기까지 언어처리장치(LPU) 10만8000개를 배포할 계획인데, 수요에 따라 연내 150만 개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삼성전자 혁신센터(SSIC) 산하 펀드인 삼성캐탈리스트펀드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기업 가치로 28억 달러(약 3조8500억원)를 인정받으며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 그로크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첨단 파운드리 공장 4나노 공정(SF4X)에서 차세대 칩을 생산할 예정이다.

2016년 구글 알파고 이후 AI 전용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구글

에서 AI 전용 칩 텐서처리장치(TPU)를 초기 개발한 로스가 그로크를 창업했고, 이외에도 그래프코어(영국)와 세레브라스·삼바노바(미국) 등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해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들은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좀처럼 대형 고객을 확보하지 못했다.

구원의 손길은 중동에서 왔다. AI를 석유 다음의 먹거리로 삼으려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이 AI 연산 인프라 구축 등에 지갑을 열고 있다. 그로크는 지난 3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AI 인프라 구축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람코는 시가총액 세계 5위 기업으로 최근에는

오일머니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세레브라스는 UAE 기업 G42와 계약을 맺었는데, 대당 1억 달러(약 1400억원)의 슈퍼컴퓨터를 최대 9대까지 구축하는 내용이다. G42는 UAE 왕세제가 소유한 회사로 국가 차원의 AI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중동을 통해 AI 기술·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미국 정부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다. G42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 참여 투자자로 받아들였고, 세레브라스·그로크는 모든 칩 제조를 미국 내 공장에서 해결한다.

그로크의 LPU는 AI 훈련이 아닌 추론(사용자 서비스)에 특화돼 있고, 지연 없이 AI 모델과 실시간 대화 수준의 속도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LPU에

는 GPU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없이 칩에 내장된 S-RAM만을 메모리로 쓴다. S램은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작아 데이터 대량 처리에 불리하다. 하지만 LPU 칩을 대량 연결해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 있으며, AI 훈련이 아닌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속도와 비용에서 모두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장악한 데다 HBM 공급량도 빠듯하기에 그로크 외에 텐스토렌트·삼바노바 등도 HBM을 아예 쓰지 않거나 탑재량을 줄인 구조의 특화된 AI 칩을 내놓고 있다. 삼성캐탈리스트는 텐스토렌트와 삼바노바에도 투자했다. 다만 아직 엔비디아 GPU 아성에 흡집을 내는 스타트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심서현 기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로이터 보도)

삼성 HBM3E에 쏟아지는 관심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가 연일 관심을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의 HBM3E가 AI(인공지능) 프로세서에 쓰기 위한 엔비디아(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단독 보도하면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번 로이터 보도에 대해 “이전 상황과 달라진 게 없으며, 보도 내용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는 삼성전자의 HBM3E가 최근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도하며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 분투해 온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가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또 “삼성과 엔비디아는 승인된 8단 HBM3E 칩에 대한 공급 계약을 곧 체결할 것”이라며 “4분기 중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통의 말도 전했다. 다만 12단 HBM3E 칩은 아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식은 전일보다 3.03% 오른 7만 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로이터는 지난 5월에도 삼성전자가 발열과 전력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엔비디아의 8단·12단 HBM3E 품질 검증 통과에 실패했다고 보도해 삼성전자가 당시 입장문을 내고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이 이어졌고, 전

승 환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6월 대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테스트 통과 실패설’을 직접 부인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번 보도에서 발열 등의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BM3E 설계를 재작업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HBM3E의 엔비디아 납품 시기를 둘러싼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삼성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블룸버그 통신이 삼성의 HBM3E 승인과 관련, “2~4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11월까지 엔비디아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을 언급하며 말을 아끼면서도 “주요 고객사에 (8단 HBM3E의) 샘플을 제공했고 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3분기 중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혀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황수연 기자

‘배터리 정제’ 알 수 없는 전기차 50만대

(제조사·생산시기 등)

현행법, 제조사 등 공개 의무 없어

‘청라 사고’ 벤츠도 브랜드 안 알려

내년 출시 차부터 배터리 정보 공개



지난 5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를 옮기고 있다. 7일 서울 마포구 한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EQE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네이버 ‘메르세데스-벤츠 EQ 클럽’ 등 온라인 카페엔 배터리 불안을 걱정하는 전기차 차주의 글이 하루 평균 약 60~70건씩 올라오고 있다. 지난 6일 충남 금산의 주차타워에선 기아 EV6에서도 불이 났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벤츠사고 차량에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Farasis)’의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졌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V6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인 SK온은 “필요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벤츠를 비롯해 현대차·기아·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회사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차종별 탑재 배터리의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배터리 용량과 최대 주행거리만을 표시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브레이크나 사이드미러를 어느 회사에서 납품받은 건지 표시하지 않듯, 배터리도 제조사 표기를 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불안이 쌓이면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화재 사고사 원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담긴 배터리 관련 의무 규정은 크게 2가지다. ▶전기차 제조사는 사전에 정부 인증을 받은 배터리를 써야 하고 ▶배터리 일련번호를 등록해 탑재부터 ‘사용후 재처리’까지 이력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보는 전기차 차주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배터리 이력이 관리되면 원인 불명의 화재사고 발생시 해당 배터리와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같은 회사의 제품을 정부가 일괄 점검할 수 있다.

문제는 새 법령 시행 이후 출시된 전기

차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전기차 주인이 교통안전공단에 식별번호를 자율등록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차주가 자기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교통안전공단이 해당 차량 제조사에 의뢰해 배터리 관련 정보를 받아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판매사 입장에서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배터리 정보를 알 길이 없다. 현재는 현대차·기아·KG모빌리티·테슬라·BMW만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마저도 국산 전기차는 2023년 12월 출고분부터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이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자율등록 제도를 통해서든 지난해 12월 이전 출고된 약 50만대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계속 ‘깜깜이’ 상태로 남는다. 불이 났을 때 순간 발화 속도가 높은 배터리 특성상,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정부는 차량 화재사고 1건당 내연기관차량 피해액은 800만원, 전기차는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선욱·고석현 기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와 화재 발생

누적등록대수(만 대), 자료: 국토교통부, 소방청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한 알에 16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브라보
마이
우메켄 효소환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36가지 과일 | 27가지 야채 | 68가지 허브 및 해초 | 29가지 곡물과 버섯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출시 기념

NEW 효소환 구매 시 특별한 선물과 효소환 2주분 무료 증정!

9/2일
까지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과체중이신 분
- 번비로 고생하시는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매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을' 위해 플랫폼 규제하면 소비자와 산업 발전은 어떡하나

(乙·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사건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만 해도 알리와 테우 돌풍과 해외 직구 규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알고리즘 조작 제재,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 등에 이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년째 계속되는 플랫폼 규제 입법 논란 역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의 본질은 인터넷 중개업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플랫폼이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뉴스와 영상, SNS를 보며, 택시를 부르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물건을 산다. 많이 이용하는 만큼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는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 이유도 되지만 합부로 규제해서 안 되는 이유도 된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 자칫 소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본질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업이다. 2010년대 후반, GAFAM이라 불린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MS 등 빅테크 플랫폼이 세계 최고의 가치 있는 기업들이 되면서 플랫폼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제학자들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 특성에 주목했다. SNS로 예를 들면, 더 많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수록 보는 사람이 늘고, 그럴수록 수익이 높아져 다시 콘텐츠도 늘리는 식의 피드백 효과다. 여기에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능력이 결합하면 한 번 주도권을 잡은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하는 풀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콘텐츠를 직접 구매해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나 직매입이 90% 이상인 쿠팡처럼 중개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네트워크 효과나 데이터의 중요성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대두로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규제는 제각각

플랫폼 규제 논의는 2010년대를 전후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전에는 플랫폼에 기존 규제를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규제 완화론이 더 우세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GAFAM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견제론이 우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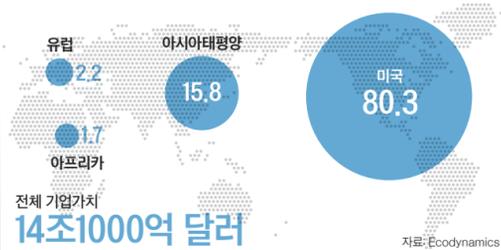
플랫폼 규제 강화를 선도한 것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플랫폼 경쟁에서 확실히 뒤처졌다. 2023년 기준 글

글로벌 대세가 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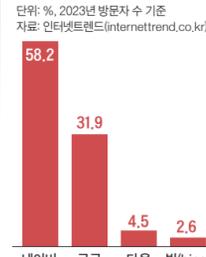
순위	기업명	2024년 (달러)	2023년 (달러)	비고
1위	GE(종합)	3190억		
	*MS(테크)		3조3420억	*온라인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업체들
2위	엑손(석유)	2830억		
	*애플(테크)		3조1600억	
3위	*MS(테크)	2820억		
	엔비디아(반도체)		2조7810억	
4위	화이자(제약)	2700억		
	*알파벳(테크)		2조650억	
5위	씨티(금융)	2400억		
	*아마존(테크)		1조8990억	
6위	월마트(소매)	2400억		
	아랍코(석유)		1조8200억	
7위	BP(석유)	1970억		
	*메타(테크)		1조1810억	
8위	AIG(보험)	1890억		
	버크셔해서웨이(지주)		9440억	
9위	인텔(반도체)	1840억		
	TSMC(반도체)		8400억	
10위	뱅크오브아메리카(금융)	1680억		
	엘라이릴리(제약)		7240억	

자료: Visual Capitalist-Forbes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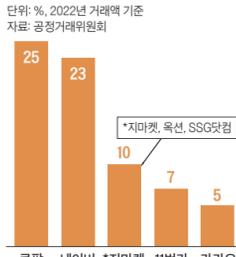
세계 100대 플랫폼의 대륙별 분포 단위: % (기업가치 기준, 2023년 8월 기준)



국내 검색 서비스 점유율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점유율



'갑을 문제'는 자영업자 많고 플랫폼 간의 경쟁 치열해서 생긴 현상 활발한 플랫폼 간 경쟁은 소비자 후생과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 사전규제하면 사업 기회 놓치고 경쟁력 잃어... 해외업체만 웃을 것

로벌 100대 플랫폼 중에서 EU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미국 기업이 80.3%,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가 15.8%인 데 비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EU 경쟁 당국은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제재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 길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만들었다. 7개 게이트키퍼 중에서 EU 기업은 지난 5월 추가된 부킹(Booking.com)이 유일한다. 본사를 유럽 밖으로 옮길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EU 경쟁 당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러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리나 칸(Lina Kahn)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의장이 되는 등 반(反)대기업 인사들이 등용되고, 디지털 시장법과 비슷한 6개 법안이 상정되었다. 당초 플랫폼 기업의 좌편향을 비난했던 공화당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폐기됐다. 뚜렷한 명분 없이 자국 기업을 발목 잡는다는 비판이 원인으로 보인다.

국내 규제 논의는 여론 따라 갈팡질팡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은 엇갈린다. 브라질로 EU와 분리된 영국은 지난 5월 디지털 시장법과 유사한 법을 통과

시켰다. 일본은 세분화된 접근법을 취했는데, 온라인 쇼핑 등 일부 분야에 약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애플·구글 등이 장악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등에는 강한 규제를 도입했다. 대만은 검토 끝에 추가로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통점은 자국의 시장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전면적으로 부상한 것은 2020년의 일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의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착수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주무 부처 논란이 일었다. 논란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 의원들까지 참전하며 계속됐는데, 규제 필요성이나 수준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규제권 확대 경쟁이 핵심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흐름이 바뀌어 민간 중심 경제 원칙에 따라 온플법 입법을 중단하고 자율규제 기조를 채택했다. 하지만 2022년 말 카카오 화재 사건을 계기로 흐름은 또다시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EU의 디지털 시장법과 유사하게 대형 사업자를 지정해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나섰다. 업계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논란은 총선

기간 수면 밑으로 내려갔지만, 국회가 개원하자 야당 주도로 유사 법안은 물론 과거 온플법의 재추진 움직임도 되살아나고 있다.

드물게 토종 플랫폼이 힘쓰는 한국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주된 대상은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 이용사업자와의 관계, 그리고 플랫폼 간의 관계, 이렇게 세 방향일 것이다. 이 중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많았던 부분은 이용사업자 관계, 즉 갑을 문제다. 플랫폼에 연결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나 배달료, 광고료 등을 놓고 플랫폼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는 외국과는 다른 양상인데, 자영업자가 워낙 많고 영세한 우리 경제의 특징이 주요 원인이었다.

역설적이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플랫폼 간 경쟁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쟁은 충성 고객을 누가 더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소비자에 혜택을 집중하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이용사업자에 부담시킨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용사업자의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배달의 민족이 쿠팡이츠의 도전에 맞서다가 수익성이 압박받자 중개 수수료를 올린 사례나, 티몬과 위메프가 각종 할인 및 이벤트로 소비자를 끌면서 판매사업자에게는 정산을 지연한 것도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플랫폼의 활발한 경쟁은 소비자 후생과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한국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을 발휘하는 드문 경우다. 많은 국가에서 구글 검색 점유

율은 90%가 넘지만, 우리는 아직도 네이버 점유율이 더 높다. 아마존의 독주가 일찌감치 굳어진 해외와 달리 우리 이커머스 시장은 최근까지 절대 강자 없는 경쟁이 이어졌다. 숙박 플랫폼이나 배달 플랫폼 역시 치열한 경쟁 중이다. 물론 애플, 클라우드, 모바일 메신저 등 일부 사업자의 독주가 굳어진 사례도 있다.

중요한 점은 국내 플랫폼의 규제 여부를 외국 상황에 준해 판단하거나,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뚱뚱그려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독과점의 폐해로 단정 짓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존경쟁 고려해 규제는 신중하게

선진 시장경제의 거래 질서 확립은 보통 사후적 규제에 접근한다. 자유롭게 거래하고 경쟁하되, 선을 넘는 행위는 판단해 제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경우 무엇이 선을 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시간도 걸린다는 것이다. EU의 구글 쇼핑 제재 건은 판단까지 7년 넘게 걸렸고, 그 후 7년이 더 지났지만, 구글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는 지금 봐도 불분명하다. 공정위가 카카오·네이버·쿠팡 등에 대해 집행한 사건들도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며, 학계의 이견도 적지 않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나 온플법 같은 사전규제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이도 있다. 큰 사업자에게 미리 제약을 두어 애매한 행위는 아예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단점은 명확하다. 손발이 묶인 사업자들은 사업 기회를 놓치고 점차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해외 사업자들에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 중 하나는 동의의결 제도다. 정부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다. EU의 아마존 자사 우대 사건이 이 방법으로 종결됐다. 우리도 제도가 있지만 여러 이유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행동 규약을 정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자율규제다. 다만 자율규제의 정착에는 인내심과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규제든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미칠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AI를 둘러싼 생존경쟁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신제품 세종 후코펫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ocoidi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체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가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진원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이 골격형성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Biobach 세종바이오텍

703-256-7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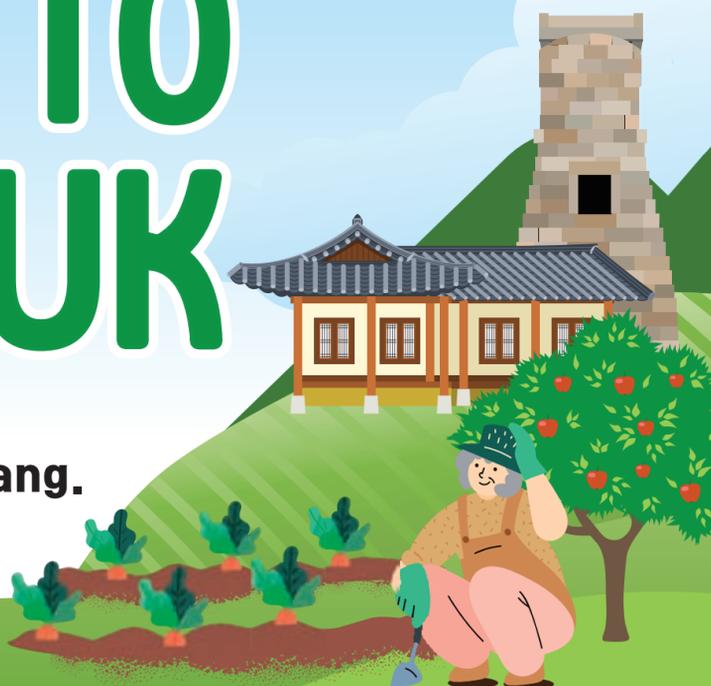


경상북도 특판전 새바람 행복 경북!

WELCOME TO GYEONGBUK

Enjoy our annual festival of groceries from the northern province of Gyeong Sang.

AUG. 9th - AUG. 22nd, 2024



<p>POHANG WELLBEING Rice Noodles 포항 웰빙푸드 미가면 쌀국수 ANCHOVY/SEAFOOD/KIMCHI/BEEF BONE 3.24-3.28 OZ X 5 EA/BOX \$7.99</p>	<p>BEYOND FARM Sonyedam Korean Snack 손예담 청송애 유과 CITRUS/APPLE 14.1 OZ \$9.99</p>
<p>DAEGE GIM Snow Crab Seaweed Snack 대게김 0.14 OZ X 16 EA/PKG \$5.99</p>	<p>ALALI FOOD Yoonjiyeong Soybean Powder & Noodles 윤지영 콩국수 세트 21.51 OZ \$7.99</p>
<p>Namwon Sancho Loach Soup 남원 산초 추어탕 1.1 LB \$4.99</p>	<p>ALALI FOOD Yoonjiyeong Cheonggukjang 윤지영 청국장 7.05 OZ \$2.99</p>
<p>NML Nangman Stir-Fried Webfoot Octopus 남만연구소 남만 쭈꾸미 ORIGINAL/CHEESE 10.58 OZ \$5.99</p>	<p>HANDO FOOD Delicious Scorched Barley and Rice 한도식품 한상궁 맛나 보리 누룽지 21.16 OZ \$5.99</p>
	<p>DADIDAN Dried Persimmon Slices Jelly 다디단 말랑촉촉 감말랭이 5.29 OZ \$4.99</p>
	<p>Sweet Rice Drink 임순희 식혜 ORIGINAL/SWEET PUMPKIN 1.5 L \$4.99</p>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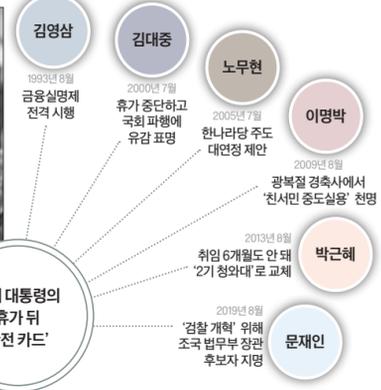
“윤석열 하면 연금개혁, 딱 떠오르게... 임기내 승부수 던져라”

윤 대통령, 여름휴가 ‘정국 구상’ 이달 말 대국민 국정브리핑 검토 중

YS, 금융실명제로 국정반전 성공 전문가 “윤 정부, 대표정책 있어야”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남 창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을 찾았다. 장병들과 족구도 함께한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휴가를 함께해서 너무 기쁘다”며 격려했다.



역대 대통령에게 여름휴가는 단순한 쉼이 아닌 정국 구상을 위한 시간이었다. 지난 5일 취임 후 세 번째 여름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고심이 생각보다 깊을 것 같다”며 “언론에 공개된 일정은 휴가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 경남 통영 중앙시장을 찾은 데 이어 6일과 7일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군 장병을 격려했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시간의 대부분은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쓰이고 있다고 한다.

4·10 총선 이후 대통령실 개편과 순차 개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대국민 직접 정치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기존의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개혁까지 포함한 ‘4+1 개혁’ 과제를 윤 대통령이 8월 말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검토하고 있다. 취임 이후 개혁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8·15 경축사를 통해선 최근 압록강 홍수로 ‘특급재해비상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큰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

적 지원 의사를 밝히며 남북적십자장을 통한 협의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처럼 휴가 복귀 뒤 국정에 매진할 윤 대통령에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어젠다, 즉 ‘윤석열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권 3년 차를 맞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표 상품,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 “온통 정치적인 이슈만 난무하고, 대표적인 윤석열표 정책 성과가 떠오르지 않는 게 큰 문제”라며 “정책·민생 이슈 부각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휴가 뒤 대형 어젠다 제안 실제 역대 대통령은 여름휴가 뒤 대

형 정책 어젠다를 던져 국정운영의 반전 카드로 쓰곤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1993년 휴가에서 돌아와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했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인 200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친서민 중도실용’으로의 국정기조 전환을 천명하고 과감한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당장 실현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어젠다로 연금 개혁을 꼽는다. 최진 소장은 “연금 개혁은 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이슈”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안을 던지고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야당의 탄핵 공세와 특검 추진 등 네거티브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4+1 개혁과 같이 두루뭉술한 비전을 제시할 때는 이미 한참 지났다”며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

는 구체적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협조도 필수, 여야와 적극 소통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9%→13%)과 소득 대체율(40%→44%)을 인상하는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자고 기습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여론은 “다른 공적 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 구조 개혁까지 포함한 제대로 된 개혁안을 총선 이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론에선 정부가 조만간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

게 거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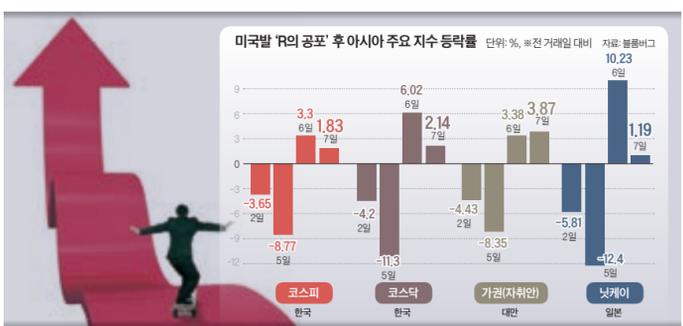
총선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 30%선이 뚫린 윤 대통령에게 ‘윤석열표 정책’은 지지율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표적인 대통령의 어젠다 성공 사례가 MB다. 취임 초 광우병 파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MB는 취임 6개월도 안 돼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발판으로 동반 성장과 공정사회 등을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며 50%대까지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역주행에 성공했다. 최병천 소장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서민 금융,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처음 제안한 정부가 바로 MB 정부”라며 “끊임없는 정부 입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 각인시키고 이슈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 대패로 임기 초반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게 과거 대통령에 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게 더욱 절실하다. 게다가 이른바 ‘윤·한 갈등’을 겪었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만큼 여당 또한 ‘적극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을 통해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이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결국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허진·박태인 기자

미국 기침하면 털썩, 오를 땀 질끔... 코스피 ‘저평가의 늪’

코스피 연초 대비 수익률 -3.8% 닷케이는 5%, 가권은 19% 플러스 10년간 상장기업 이익률 감소세 밸류업도 더더, 자금 유입 한계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외부 변수에 지나치게 취약한 한국 증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달 들어 코스피·코스닥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3% 상승한 2568.41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블랙 먼

데이’였던 지난 5일 8.77% 급락했지만 6일 3.3% 상승에 이어 이날도 1%대 상승에 그쳤다. 코스닥 지수 역시 2.14%(748.54) 올라 지난 5일 무려 11.3% 떨어진 지수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일본 닷케이지수가 12.4%(5일) 폭락한 뒤 10%(6일) 넘게

뛰고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오를 때는 질끔, 내릴 때는 폭삭’이란 국내 증시의 꼬리표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실제 코스피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8월 7일 증가 기준 -3.8%다. 일본 닷케이 지수(5.41%), 대만 가권(자취안) 지수

(19.28%)가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며칠 사이 요동치는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낮은 영업이익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 하락 ▶탄탄하지 못한 수급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시장은 일본·대만·미국이 오를 때 충분히 오르지 못하다가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지는데, 회복은 더디면서 (주요 국증시와) 상승률이나 밸류에이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익의 질이 좋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는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더 빨리 (주가) 빠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기업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5.56%→5.39%로, 코스닥 상장사는 4.48%→3.36%로 쪼그라들었다. 이마저도 연도별로 보면 영업이익률에 큰 편차가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진 밸류업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점도 외국인의 ‘셀 코리아’를 부추기는 요소다. 이찬형 페트라자산운용 부사장은 “기업들이 밸류업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빠지는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저 없이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리더에서 두산갑책을 인적 분할한 뒤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힌 두산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외국인은 두산그룹이 계열사 재편안을 발표한 직후인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두산갑책 주식 약 23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김경진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첸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MD·DC 면허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월드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가수 최수호!!!

실력있는 가수로, 사람들을 홀린 매력남, 다재 다능한 능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을 트로트 가수!

최수호 출생과 교육배경: 최수호는 한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2002년에 일본에서 태어났다. 한국의 전통의 얼을 제대로 배우고자 중학교때 한국으로 돌아왔다. 학력은 국립국악중학교, 국립 전통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한국 예술 종합학교 재학중이다.

최수호 미스터 트롯2 오디션 : 초등학교 4학년때,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대회 '민요신동'으로 출연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KBS 트롯전국체전에 참가하였다. 그후 대학생때 2022년 12월22일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오디션에 참가하였다. 첫 회 참가번호 1번 '대학부 최수호'..로 출연하여, "안녕,나는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러 나온 21살 수호야! 오늘 내 노래 같이 들을래?" 라고 풋풋한 멘트로 본인 자신을 소개하며 목에 걸고 나온 헤드셋을 걸어주는 퍼포먼스로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인, 상큼하고 풋풋한 대학생 최수호..나훈아의 '갈무리'로 경연자 중 첫 올하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미스터트롯2'의 여정을 시작했다. 1:1데스매치때는 '월하가약'으로 진한 구음 발성으로 몰입력을 높이고, 한의 정서를 살린 섬세하고 애절한 표현력으로 데스 매치의 '진'으로 등극했다. 오디션 경연중에서 가장 어려운 곡인 '월하가약'노래를 아주 멋지게 부른 후,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빠른 속도로 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최수호는 '미스터트롯2'에서 최종 순위 5위로 마감하며 '미스터트롯2'의 당당한 TOP7이 되었다.

최수호 콘서트 출연과 다양한 활동 : 경연이 끝난 후 TOP7과 함께 '광화문버스킹' '양재천 버스킹' 등 팬들과의 행복한 만남 이벤트와 TV조선의 '트랄랄라 브라더스' '미스터 로또' 등의 후속 프로그램과 병행하며 TOP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2023년5월5일 TOP7의 첫 공연인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팬들과 만났다. 2024년3월17일 TOP7전국투어 서울 앵콜 공연을 마지막으로 80회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개인 첫 지역행사인 '황성 한우 축제'를 시작으로 '고흥 군민 효창 한마음 대축제' '서울 잠실 한화 슈퍼 콘서트' '경주 슈퍼 콘서트' '제주 서귀포 글로벌 페스타 전야제' '크루즈 공연'무대에 섰다. 2023년 11월 18일 (토) 미국 최초 미스터 트롯 TOP7들이 '미국 폐창가 서밋' 에서 공연을 했다. 2024년 1월 5일 최수호의 공식 팬클럽인 '수방사'와 함께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기부를 시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2024년 3월2일 18시, 두번째 신곡(리메이크곡)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음원이 발매 되었다. 최수호는 두 달 정도의 '심'속에서 '위버스' '인스타' '팬카페' '라방' 등등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고 그 덕분에 팬가입수 숫자만 8천명을 넘어섰다. 2024년 4월 29일 오후2시, '최수호 진옥 트롯 컬렉션- 서울,부산 콘서트' 공연. 인터넷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진행된 '최수호 진옥 트롯 컬렉션 서울공연' 티켓팅이 예매 오픈과 동시에 2분만에 매진, 초고속 완판을 기록하며 막강한 티켓 파워를 보여주었다.

최수호는 한 인터뷰에서 "콘서트 매진 이라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꿈꾸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6월1일 서울 명화 아트홀 1시에 공연이 시작되었고, 팬들의 열렬한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노력의 결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수방사 팬분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했다. 6월1일과 22일, 4회동안 여러 장르를 불문하고 전통트로트에서 댄스 발라드까지, 배우같은 표정연기와 아이돌급 외모와 댄스까지 황홀한 무대를 보여 주었다. "내가 최수호다" 하는 모습을 다시 각인시켜 준 최고의 완벽한 공연이었다.

최수호 가수의 선한 영향력: 최수호와 수방사(팬클럽), 최애돌셀럽은 서울, 대구에서 저소득층에게 연탄 지원 봉사를 했다. 그리고 베이비 박스 후원 및 봉사활동 (서울관악구소재 주사랑 공동체) 셀럽 캠프를 통해 저소득 암환자 치료비를 기부했다. '스타투'를 통해서 안양시 보호센터에도 생필품 전달했다. 'SOS 어린이 마을'에 나눔 (물품지원), 국가유공자 후손으로서 원주 보훈 요양원 위문공연을 했다. 또 올해 2024년에 생일 기념으로 서울 어린이 병원 기부 등등...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외의 여러 활동: 최수호 가수는 2024년5월 25일, 잠실야구장에서 LG 야구 시구자로 뽑혔다. 첫 시구는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하게 됐다. 당시 최수호는 '콘서트보다 더 떨린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첫 시구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수방사 팬클럽 40여명도 단체 응원을 함께 했었다. 수방사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4시간동안 야구경기를 관전 했고, 야구경기가 끝난 후에 구역 정리정돈까지 하는 등 모범 팬덤 다운 모습까지 보여 주었다. 그 외 최수호는 잡지모델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3년 퀸(Queen)12월호 송년특별호에 표지 화보를 장식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엔 '마리끌레르' Marie Claire Korea 5월호에 수많은 스타들 속에서 당당히 '최수호' 이름을 올리며 모델로서 MZ만의 풋풋하고 상큼한 끼를 발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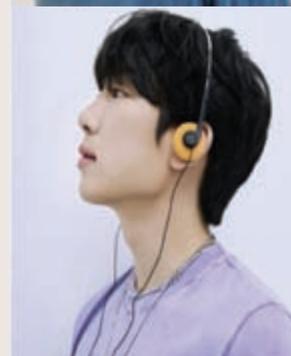
수방사 윤희-저는 약18여년 동안 드라마와 영화 분야의 일에 종사하면서 쉽지않게 달려왔습니다. 그 경력을 바탕으로 제작및 연출 지원을 준비하던 중 약간의 피로감과 지침을 느껴 맘의 여유와 심을 가지고자 14년동안 팬이었던 송홍민선수의 영국축덕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12월22일 '미스터 트롯2'의 시작과 동시에 '대학부1번 최수호'란 출연자와 마주하게되었습니다. 목에 헤드셋을 걸고 나와 수줍게 자기소개를 하던 해맑은 한 대학생. 그 대학생이 나훈아님의 '갈무리'를 부르는 순간, 전 저도 모르게 모든 게 멈춰 버렸어요. 14년전 18살의 송홍민선수를 보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무대에 섰을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학생이었지만 깜짝 놀랄만한 수준 높은 실력과 마음가짐,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과 눈빛이 너무나 많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 순수한 실력 있는 어린 가수가 송홍민선수처럼 존경받는 글로벌스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서, 축덕 투어를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최수호 가수님의 거의 모든 공연, 콘서트에 다 참석하고, 강남 홍보카페등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수호 가수님의 탄탄한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으니, 앞으로 최수호 가수님이 대한민국의 문화적 아이콘을 넘어서, 세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글로벌 슈퍼스타가 반드시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방사 난초-사연 저는 아들 하나 잘 키워 장가 보내고 나니, 마음이 헛헛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2 오디션에 에 헤드셋을 하고 나온 미소년 같은 최수호 가수에게 심공했습니다. 첫 소절을 듣자마자, 입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큼 발랄함과 중후한 음색에 반하고, 세사시를 잊게 만드는 미소에 또 한 번 반했습니다. 티없이 잘생긴 얼굴과 선한 가창력을 가진 최수호 가수님을 위해서 오래 오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찬란하게 빛날 가수 최수호!!!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대표 아티스트 최수호 가 되기 위해서 최수호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수호가 제일 사랑하는 수방사들이 평생 옆에서 그를 수호할 것이다!!!



후원: 최수호 수방사 윤희 /최수호 공식 팬카페 / 유튜브 월드팬 공식채널



동교동계 상징 DJ 사저 팔리자... 회수론에 시끄러운 야권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교동 사저를 국비와 서울시비,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해 문화유산 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의 공공재산이자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DJ 3남인 김홍걸 전 의원 소유였던 동교동 사저는 지난달 24일 커피프렌차이즈업체 대표 박모(51)씨 등 3명에게 약 100억 원에 팔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를 지난달 상속세 문제로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7일 동교동 사저 모습. 작은 사진은 1987년 가택연금으로 자택서 기자회견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뉴스1,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홍걸, 커피업체 대표에 100억 매각

민주당 지도부에서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 공개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구(舊) 동교동계인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동교동 사저 앞에서 “매각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같은 당 이낙연 전 대표도 “사저는 DJ가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위대한 증거”라고 가세하자 뒤늦게 나섰다는 평가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에 있는 동교동 사저는 DJ가 퇴임 전인 2002년 본래 건물을 헐고 20억여원을 들여 신축했다. 연면적 656.22㎡(198.5평)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본동(이희호 여사 소유)과 129.61㎡(39.2평) 크기의 지하 1층·지상 1층짜리 차고동(대통령 경호처 소유)으로 구성됐다. 2019년 6월 이 여사가 서거한 뒤 민법 1000조 ‘피상속인(이 여사)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조항에 따라 김 전 의원이

상속받았다. 2019년 당시 본동 공시가격은 32억5000만원으로 차고동까지 합쳐 상속세 17억원가량이 발생했다.

김 전 의원은 중앙일보에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저를 잘 아는 인사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월 수백만 원대 원리금과 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세까지 내야 해서 김 전 의원도 버거워했다”고 전했다.

이 여사의 유언장에는 “만약 지자체와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일·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누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2009년 공공매입한 마포구 서교동 최규하 전



“매각 백지화” “문화유산화 하자” 동교동계 중심 재매입 주장 줄이어 박지원은 “6억원대 사재 내겠다”

총선 거침머 동교동계 세 급속 약화 이재명 ‘정통론 싸움 번질라’ 침묵 당내 “호남민심 위해 이재명 나서야”

대통령 가옥처럼 동교동 사저도 그 전례를 따르길 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20년 서울시는 김 전 의원의 공공매입 및 문화유산등록 요청을 심의 끝에 부결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동교동 사저는 2002년에 리모델링 준공돼 당시 18년 된 건물이어서 관련 규정상 50년이 지나지 못해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심의와는 별개로 김 전 의원의 상속세 체납과 대출로 인해 세무서·시중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억2179만원)이 남아있어 공공매입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2년 뒤인 2022년 DJ 2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서울시에 공공매입·문화유산 등록을 재요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됐다.

사저를 매입한 박씨는 매각 당시 김 전 의원에 “본동에는 추모시설을 만들고 차고동은 개축해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입장료를 받고 간단한 음료도 파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층에 전시시설과 카페를 겸한 ‘노벨커피숍’이라는 가칭을 지었다는 말도 들린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지난달 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지원·정동영·추미애·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모임을 열었고 직후 박지원 의원은 6억원대 사저를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동교동계 인사는 “김대중재단 차원에서 재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

만 박씨는 언론인터뷰에서 “뜻이 있어서 매입했는데 되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얼마나 공익적으로 쓰일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얼마나 공익적으로 쓰일지 의문”

이재명 전 대표는 7일까지 동교동 사저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DJ의 총재 비서실장 출신인 김민석 의원은 전날 “이 전 대표에게 보고드리니, ‘DJ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자’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내 동교동계는 확연하게 줄었다. 동교동계이자 비명계로 꼽히는 설훈·김한정 전 의원 등은 낙선했다. 이전 대표가 현재 신중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차츰 동교동 사저 문제가 비명계 대 천명계의 정통론 싸움으로 변질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명계 중진 의원은 “민주당 탈당 세력인 새로운미래가 이 문제를 꺼낸 건 정치적 수사가 가깝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광주 권리당원 득표에서 83.6%를 기록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5%포인트가량 적은 표를 받았다. 투표율도 낮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 민심을 위해서도, DJ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전 대표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김효성 기자

티메프 부채 1조6400억 신고... 정부, 피해업체 용자지원 확대

정부, 티메프 사태 추가 대책 발표
대출지원 5600억 → 1조2000억 늘려
이번주 일반 상품 구매는 전액 환불
e커머스 ‘40일내 정산제’ 도입키로
판매대금 일부 별도 관리 의무 신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용자 지원 규모가 1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e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40일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쓸 수 없도록 일정 비율을 제3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대책이다.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업체를 위해 정책 대출 등 총 1조2000억원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존 지원대책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1차 대책 때 발표한 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는 9일부터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 규모 보증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날부터 신

청자를 모집한다.

환불 조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PG(전자지급 결제대행)사·발행사·여행사 간 권리 다툼이 있는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하면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e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

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대응방안에 피해자 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 전액 환불을 받게 된 일반 상품 구매자는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원만하지 않은 상품권 구매자, 소상공인 등은 추가 대책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티몬에서 250만원을 주고 베트남 다낭 여행 상품을 산 전예령(43)씨는 “카드사는 PG사에서 넘어온 자료가 없다고 하고, PG사는 환불 책임이 없으니 카드사와 여행사에 문의하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티메프가 자체 추산한 부채

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6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총 부채액을 티몬 1조2000억원, 위메프 4400억원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거래업체 미정산 금액 등이 포함된 상거래 채권액은 두 회사를 합쳐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 신청일 뒤 티메프를 통해 발생한 거래 상황과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를 감안하면 최종적인 채권액 규모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정부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세종=이우림 기자, 김경미·오삼권·양수민 기자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형질하고 쾌적한 실내
-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덕담 확인해 보세요

문의 703-980-9890

<p>DC 창고</p> <p>SOLD</p> <p>\$2.5M</p> <p>DC, NoMa Metro 상권</p>	<p>DC 사당센터</p> <p>SOLD</p> <p>\$2.4M</p> <p>DC, Capital Hill 지역</p>	<p>DC 단독건물</p> <p>SOLD</p> <p>\$1.5M</p> <p>Benning Rd. 개발지역</p>	<p>DC Mixed-Use</p> <p>SOLD</p> <p>\$1.6M</p> <p>Capital Hill 지역</p>	<p>DC 사당센터</p> <p>SOLD</p> <p>\$4.5M</p> <p>Popeyes, 연인컴 \$32만</p>	<p>DC NW 아파트</p> <p>SOLD</p> <p>\$1.5M</p> <p>Metro 상권, 5유닛</p>
<p>DC Georgetown</p> <p>SOLD</p> <p>\$1.5M</p> <p>Retail / Residential</p>	<p>DC H Street</p> <p>LEASED</p> <p>단독건물</p> <p>Union Station</p>	<p>DC Warehouse</p> <p>SOLD</p> <p>\$6.8M</p> <p>67,000sf, Industrial</p>	<p>DC Warehouse</p> <p>SOLD</p> <p>\$5.8M</p> <p>56,000sf, 창고 6에이커</p>	<p>DC Warehouse</p> <p>SOLD</p> <p>\$3.6M</p> <p>냉장 / 냉동고, 창고</p>	<p>for SALE</p> <p>\$1.8M</p> <p>DC 3 유닛 주상복합</p>

703.395.3123

미엘신 케빈신

POWER BROKER

냉방병인줄 알았는데... 코로나 환자 한달새 5배 급증

7월 마지막주 465명, 확산세 가팔라 전파력 높은 KP.3 변이 등장인 원인 질병청 “재유행 아냐, 새 백신 준비”



지난 7월 첫째 주 91명이던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마지막 주엔 465명으로 늘었다고 질병청이 7일 밝혔다. 이날 편의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여름철엔 호흡기 감염병이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한 탓이다.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도 다시 퍼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재유행 판단은 아직 이르다”면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7일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 91명이던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 수는 마지막 주에 465명으로 늘었다. 한달 새 약 5배, 전주(226명)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뛰었다. 전체 숫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확산 속도가 한층 빨라진 셈이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는 이유로는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인 KP.3 등장이 첫손에 꼽힌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증손자뻘인 KP.3의 검출률은

지난달 39.8%로 6월(12.1%)보다 크게 증가했다. 다만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KP.3는 면역 회피 능력이 있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KP.3 감염 환자의 증상이 기존 코로나19 변이와 다르지 않고, 중증도와 치명률도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확산세는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선수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소 40명의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4개국 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이 몇 주 사이 증가세”라며 “실제(드러난) 환자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20배 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산에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2년·2023년에도 여름에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호흡기 감염병은 더운 날씨로 밀폐된 곳에서 냉방기를 틀며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환경에서 퍼지기 쉽다는 설명이다. 양진선 질병청 감염관리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재유행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다음 주까지 입원 환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10월 KP.3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도입해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양과장은 “신규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65% 가까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밝혔다. **문상혁 기자**

혼자 남은 김태규, 방통위 철벽수비... “누구도 점거 못 하게 봉쇄하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야당 공세 맞서 일일이 정면대응 방통위 현장검증 댄 고성도 오가 내일 과방위 청문회에 불참 통보

“(4층 대회의실 앞에) ‘심판정(審判廷)’이란 현판을 붙이고, 기관장 외 누구도 함부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지 않게 봉쇄 조치하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7일 통화에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야당 처사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며 “대회의실은 방통위의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심판정’인 만큼, 기관장이나 상임위원회 외 누구도 함부로 점거할 수 없

도록 현판을 걸고 배치를 손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10명은 6일 오전 정부 과학청사 방통위를 방문해 3시간 30분 동안 현장 검증을 벌였다. 지난 달 31일 진행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의결의 불법성을 국회가 검증하겠다는 취지였다. 야당 의원들은 심판정으로 쓰이는 4층 대회의실을 차지하고 회의 속기록 등을 요구했고 방통위가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당초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해 대회의실을 개방하게 됐다”며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과정에서 “마치 피감기관 청문 받듯 검증하는 건 안 된다” “질의 표현 대신 합의 표현을 써 달라” 등 민주당 공세에 맞섰다. 그는 지난 5일에도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 잡기와 정치적 분열을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 등은 “출석요구서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지난

2일 일방적으로 의결한 청문회(9일)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민주당 등은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2·3 회차(14일과 21일)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이 출석 요구한 증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그리고 지난 달 31일 선임된 KBS 이사 7명,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 등 22명이다.

이날 회의에 여당에선 신성범, 최형두 의원이 나와 “오전 10시 회의 일정을 전날 밤 21시 22분에 받았다. 일방적인 황당한 회의운영(신 의원)”이라고 반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의 현장검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했지만, 표결이 강행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란 입장이다.

김민정·강보현 기자

음주운전 걸린 BTS 슈가 “키패드 탔다”... 경찰 “스쿠터”

타다 넘어져 적발, 면허취소 수준 전동 스쿠터면 형사처벌 받아야 사과문 올렸지만 사건 축소 논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이 바다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로 인계했다. 슈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했다고 한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0.2% 미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슈가가



몰랐던 차량이 범칙금 처분 대상인 전동 키패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동 키패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시 전동 키패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 등 행정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얇은 안장이 설치돼 있어 발판만 있는 전동 키패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슈가와 BTS 소속사 빅히

트 뮤직은 전동 키패드라는 표현을 썼다. 전동 키패드로 분류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별칙 조항의 예외로 분류돼 형사 처벌받지 않으나 면허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키패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키패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

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고 했다.

빅히트 뮤직도 7일 입장문을 내고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키패드를 이용했다”며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하다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소집 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김서원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밤을 새우다’

일상에서 ‘밤을 새지 말라’는 말을 흔히 한다. “학습효과를 높이려면 밤을 새지 말라” “피부미인이 되려면 밤을 새지 말라”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모두 ‘밤을 새우지 말라’로 바꾸어야 한다. ‘새다’는 날이 밝아 오다, ‘새우다’는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지내다 뜻으로 두 단어의 용법이 다르다. ‘새우다’는 타동사로 ‘밤을’이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만 ‘새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므로 ‘밤을 새지 말라’로 쓸 수 없다.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꼬박 밤을 새우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9%의 만취 상태와 비슷하게 운동감각이 떨어진다”처럼 사용한다. ‘밤(이) 새다’ ‘밤(을) 새우다’ 꼴이 변형돼 하나의 낱말로 굳어진 ‘밤새다’ ‘밤새우다’도 마찬가지다. “일한다고 허구한 날 밤새니 몸이 축날 수밖에!” “계약 전, 뜯논으로 밤새다”와 같이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밤새니’ ‘밤새다’는 ‘밤새우니’ ‘밤새웠다’로 고쳐야 바르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하얗게 지센 밤을 당신은 잊었나요” “긴 밤 지새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이란 노랫말은 없다. ‘지새운 밤을’ ‘긴 밤 지새우고’라고 부른다. ‘지새우다’는 타동사로 목적어를 취하나 ‘지새다’는 자동사여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므로 ‘밤을 지새다’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주택시장 구할 후보는 누구일까



이은영
LA중앙일보
경제부 부장

주택시장은 뜨거운 여름 성수기에도 냉각 상태다. 주택 구매력의 위기 때문이다. 예비 주택 구매자는 물론 주택소유주,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모두 딜레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이른바 스타터홈 주택 가격이 하락한 주택 구매력을 반증한다.

주택 정보 업체인 질로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 주택 최저가가 100만 달러가 넘는 도시가 237개에 이른다. 5년 전의 84개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높은 주택 가격으로 자녀들의 내 집 장만이 쉽지 않자 부모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자녀의 모기지 대출에 기여이 코사인을 한다. 부모가 공동차용자가 되어 자녀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부모라면 코사인을 하는 비율은 17%로 증가한다.

첫 주택 구매자인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도 한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학 주변의 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로 나타나기도 한다. 렌트 소득에 자녀 졸업 후에는 매각을 통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 주택소유주도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최근 3년간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황금수갑 효과’에 묶였다.

팬데믹 기간 3% 이하의 역대 최저 모기지 금리를 확보한 주택소유주들이 주택 판매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주택소유주 가운데 5% 미만의 금리를 가진 비율은 약 80%에 이른다. 이런 상황을 보면 매물 부족은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은퇴 연령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생활을 위한 다운사이징 효과가 사라졌다. 통상적으로 시니어들은 자녀가 독립하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 은퇴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 주택을 팔아도 기대만큼 수익이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수년간 상승 곡선만 그리던 주택 가격이 꺾였다. 셀러는 가격을 내리고 모기지 금리는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셀러는 리스팅 가격보다 3~5%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받고 있다. 지난달 전년 대비 리스팅 가격을 내린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전국 50개 대도시 중 47곳에 달한다. 그래도 주택구매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모기지 금리 하락세에도 주택 가격은 왜 꺾이지도 하지 않을까. 모기지 금리가 아직은 높고 가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로 서두르지 않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인 내 집 마련의 실현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자연히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유권자의 최대 관심 사항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경제 정책도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첫 주택구매자와 세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의회 연설을 통해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주택소유주 우선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용도 변경을 쉽게 하는 바람에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건설이 늘면서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제 대선까지 10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정책은 항상 뒤로 밀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위기에 몰린 유권자들은 냉각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의지를 보이는 후보에게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아침에

따듯했던 그때 그 이웃들



송장길
언론인·수필가

방송국 특파원으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LA 인근 버뱅크 시에 주거지를 마련했다. 버뱅크에는 NBC와 CBS 방송국, 워너 브라더스와 디즈니 영화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미디어 분야 기업들이 집중돼 있어서 마음이 끌렸었다. 집은 드벨이라는 골프 코스 바로 아래에 있어 동네는 고요하고 쾌적하며,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였다.

당시 부임하자마자 엄청난 격무에 시달렸다. 방송국 사회사의 방송과 운영을 맡고 있었는데 누적된 적자와 소송 문제, 노조와의 분쟁 등을 겪고 있었고 방송 내용도 조악했다. 방송에 대한 한인들의 불신도 문제였다. 이처럼 현안이 쌓여갔다 보니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었다.

이사한 뒤 몇 주일이 지나자 이웃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길에서 만나면 먼저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면서 따듯하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가족도 그 호의에 심심껏 다가갔다. 이따금 한국 음식도 나누어 주고,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화보나 책자를 구해서 돌리곤 했다. 아랫집의 칼 변호사 가정, 그 바로 옆집의 광고회사 사장 닉 네, 뒤쪽 보잉 항공사에서 고위급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한 앤디, 위편에 록히드 항공사 간부 출신 샘, 길 건너 아들의 학교 동급생 친구 마이클 가족이 우리 집을 둘러싼 이웃들이었다. 그들과 점점 더 관계가 가까워져서 만나면 이야기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특히 닉은 유엔군 소속으로 부산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알게 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정원의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을 때나 후원에 고목이 된 살구나무와 뽕나무를 전지할 때,

차고 문을 자동으로 교체할 때, 가족 중에 병치레할 때나 아이들의 학교 행사가 있을 때 그들은 자기 일처럼 달려와 도와주었다.

이웃들은 자연히 미국 주류사회의 문화, 특히 생활 방식과 가치 체계를 들여다보고 적응할 유리창이자 학교였다. 남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깔끔한 처신,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해 주려는 배려심, 언제 만나도 반갑기만 한 살가운 인사성, 그리고 명품처럼 세련된 매너와 꾸밈없는 언행은 미국 생활을 익히는데 본보기였다.

회자정리(會者定離), 40대의 십여 년을 그렇게 평화로운 동네에서 훈훈하게 지내다가 뉴포트 코스트, 새 동지로 떠나는 날 이웃들은 집 앞에 모두 모여 배웅을 해주었다. 울컥 감정이 차올라 눈시울을 적신 쪽은 오히려 우리 가족이었다. 가끔 그곳에 들렀다가 동네도, 사람들도, 우정도 남겨놓은 채 옛 동지를 벗어날 때면 높은 야자수 사이로 쌓였던 추억들이 아련히 떨어져갔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할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듯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통일문제 갖고 노는 거냐”... 문규현·임수경 방북에 화났다

이문열, 시대를 쓰다(15)
나는 보수 문인으로 어떻게 단련됐나

1989년 문화계 화제의 인물은 나와 마광수 교수였다. 교보문고와 종로서적의 베스트셀러 1위에 내 연애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2위에 마 교수의 산문집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가 올랐다. 마 교수의 산문집은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였다. 찬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일부 여성 단체는 진보적이라는 반응이었다. 마 교수가 몸담았던 연세대 국문과에서는 “성에 관한 글·강연 활동을 자제하라”며 전공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징계를 결의했지만, 그 해 연말 마 교수는 MBC TV 교양물 ‘밤의 예술기행’ 고정 MC를 맡았다.

카드멘식의 ‘팜프파탈’(치명적인 여자)을 소재로 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가볍게 시작한 소설이었다. 일요뉴스에 연재했던 작품인데, 원고 받으러 온 기사를 기다리게 하고 그 자리에서 원고지 30장을 써 준 적도 있다. 그런데도 소설이 잘 팔렸고 이듬해 손창민·강수연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1989년 문화계 최고 화제는 마광수와 나
 89년 내가 화제였던 이유는 또 있다. 그해 7월 가톨릭 문규현 신부와 대학생 임수경씨의 불법 방북(訪北)을 비판한 내 신문 기고와 방송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나는 문 신부 등이 통일을 너무 가지고 논다고 느꼈다. 수십 년간 분단됐던 민족이, 그것도 3년간 전쟁을 치른 민족이 다시 합치는 일인데 너무 기분만 으둠벼든달까. 8월 4일 방송된 MBC TV ‘박경재의 시사토론’에 출연해 선부른 통일 문제 접근을 비판했고, 그에 앞서 7월 28일 자 조선일보에 ‘메시아를 거부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2000년 전 예수가 하늘의 용서와 화해만 강조할 뿐 로마에 핍박받는 유대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외면해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핍박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가 한국 땅에 다시 온다 한들 통일 문제라는 현실에 눈감는다면 2000년 예수처럼 처벌하겠다는 사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글의 요지였다. 정히 그리해야했다면 사제복을 벗으라고 했다.

문예지 문학정신 10월호에 대담 특집이 마련됐다. 문학계 화제 말고도 신문·방송에서의 정치적 발언으로 파장을 부른 이문열의 세계관과 입장을 들여다보는 기획이었다. 훗날 영화감독이 된 소설가 이창동, 그와 어울려다



작업 중인 이문열씨. 89년 문규현 신부 등의 방북을 비판했다고 해서 적지 않은 비판에 시달렸다. [사진 이재유]

수십년 분단 가볍게 여긴다 느낌에 “진보, 체제 비판할때 현실적인데 통일문제엔 낭만·환상적이 된다” 기고·대담서 방북 비판, 논란 커져

당시 문제만 생기면 ‘5공땀’ 유행 거기 동참 안했다고 적으로 돌려 80년대부터 세상과의 균열 커져 ‘책 장례식’ 뒤엔 나도 격한 말 응수

냈던 소설가 임철우, 시인 하재봉, 시인 겸 평론가 남진우가 토론 상대였다. 그들은 마광수 교수가 1등, 그다음 내가 화제라고 했다.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는 독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나는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거나 체제를 비판할 때는 인식이 현실적인데, 통일 문제에만 보면 모두 환상적이고 낭만적이 돼버린다”고 응수했다. 그런 발언이 결과적으로 큰 악을 도와주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비판이 거세다고 하길래 나는 이렇게 응수했다.

“나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가 하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도 묵인이고 또한 묵시의 동의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현재 자행되고 있는 합법적, 구조적 권력의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였다고 오해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이미 말한 바 있지만 현재의 권력체계에 대한 비판이 공통된 것이라면 내가 거기에 또 가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뿐이다.”

정의(正義) 자체를 뿌리친다면 작가로서 나 자신을 지탱하지 못한다. 내가

전두환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5공화국이 독재정권이었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합의된 사실 아닌가. 나까지 비명을 들춘다거나 비판을 해야 정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세상과 나 사이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나에게 대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포기한 때는 아니었다. 운동권 대학생 등 젊은 층을 꾸준히 만났던 것은 그래서였다. 잡지 대담에서는 70명 정도 만났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됐겠다. 처음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主思波)를 주로 만났는데, 나중에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 무렵 비교적 온건한 경제학도의 대화는 느긋하게 시작했다가 그의 이런 말에 일종의 전율까지 느끼며 서둘러 마무리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마르크스밖에 더 있었어요?”

나에 대한 오해 풀기 위해 운동권 70명 만나

내가 운동권을 만나볼 생각을 했던 것은 호기심에서였다. 두 명의 운동권이 길을 가다 경찰을 마주치면 운동에 타격이 달한 친구가 붙들려, 타격이 클 것 같은 친구가 붙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비밀결사도 아니고 또래 사이에 무슨 그런 충성관계가 있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면서, 가장 순수해야 할 운동권 안에 가령 두목 따로 있고 호위대가 따로 있나. 90년대 중반 이후 내가 완강한 보수로 돌아선 데는 80년대 운동권에 대한 실망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내 타고난 성향은 보수주의에 가깝다. 고향과 문중, 전통에 대한 지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조화·균형·중용 같은 어휘로 내 세계관을 설명하곤 했다.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한 가지 이데올로기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좌와 우, 유심론과 유물론, 색(色)과 공(空),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 어떤 존재든 유용한 바가 있고, 악(惡)조차도 큰 악 혹은 작은 악, 양태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균형과 뒤흔의 개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내가 화가 날 때는 뒤흔의 분배가 잘못되거나 균형이 깨질 때였다. 가령 80년대 문학이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나도 인정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이 되면 그런 대의에 따르지 않는 문학을 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내가 거의 유일했다.

나와 비슷한 성향이 전체의 30%쯤 돼서 그 대표 격으로 내가 욕먹는다면 화가 덜 났을 것이다.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문학이 아니다’ 그런 강요를 듣다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회가 다양성이 인정되는 다원주의적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내 위치가 승인을 받지 못했고,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92년 내 첫 산문집 『시대와의 불화』는 동의할 수 없었던 80년대의 정신적 유행에 대한 뒤늦은 반론이었다. 어떤 문제가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따위의 진단은 일견 타당하면서도 구조적 시각이 모든 문제 진단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처럼 쓰일 때면 정신적 유행처럼 느껴졌다. 사회나 경제, 문화 영역에서 문제만 생기면 그 원인을 5공에서 찾는 연역적(演繹的) 사고 또한 유행으로 보였다. 구조 만능은 개인의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5공 문제는 겁먹은 눈으로 그들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5공을 있게 한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80년대엔 김동리·이문구 좌우없이 교류

그런 유행에 대한 거부는 운동 세력에 적개념(敵概念)으로밖에 비칠 수 없었고, 80년대 후반 내가 정신적인 적막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된다. 9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좌와 논객들의 비판이 갈수록 격해진다고 느꼈다.

그런데 보수도 단련됐다. 아이들 별출 때 서로 번갈아 따구 때리게 하는 체벌 같은 상황을 통해, 내 감정도 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건드리다가 점점 강도가 세져 나중에는 멍들도록 때리지 않던가. 2001년 책 장례식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그 후 몇 년간 나는 어느 때보다 격한 말들을 쏟아냈다. 어느새 극우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보수 괴물처럼 비치는 것 같았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와 세상의 갈등이 한창 가파를 때도 문인들이 끼리 사적 교류는 큰 문제가 없었다.

80년대 후반 무렵 보수 문인의 좌장 격인 소설가 김동리 선생 댁에 시인·소설가들이 떠들썩하게 모인 일이 있었다. 새해 정초 인사 자리였던 것 같다. 참여 문인들의 구심점이었던 출판사 창비의 이시영 주간, 시인 겸 소설가 송기원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김동리는 귀가 어두운 모양이었다. 후배 문인들이 장난삼아 “전두환이 낫던가요? 노태우가 낫던가요?” 자꾸 물었다. 김동리 선생이 두 대통령과 교류가 있었던 점을 건드린 것이었다.

당시 두루두루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김동리 선생을 끔찍하게 행건 명천(鳴川) 이문구(1941~2003) 선배 때문이었다. 이문구는 한국전쟁 때 남로당원이었던 아버지를 잃었다. 한국작가회의의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회가 74년 발족할 때부터 관여해 90년대 후반 작가회의 이사장까지 지냈다. 스승 동리와는 이념적으로 판이했지만 흔들림 없이 스승을 쫓았다. 그가 고은·백낙청 등과 함께 반체제 운동 논의를, 김동리 선생이 창간한 ‘한국문학’ 사무실에서 하곤 했는데 동리가 그것을 묵인해줬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가 스승 옆에 붙어 있으니 진보 문인들이 동리 댁을 찾은 것이었다. 각박한 지금과 달리 낭만적인 시절이었다.



■ 1989년 산문집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로 화제와 논란을 부른 연세대 마광수 교수는 92년 소설 『즐거운 사랑의 내용』이 문제가 돼 강의도 중 구속된 이후 교수직 사직과 복직을 반복했다. 2003년 복직 후 강의하는 모습. ■ 1989년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임수경(왼쪽)과 문규현 신부. [중앙포토]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시 설

구글 독점 수출 나선 미국, 아직은 혁신이 더 필요한 한국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검색의 제약'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했다.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독점 지위를 유지하려고 연간 수천억 달러를 썼다는 법무부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아직 1심이지만 빅테크를 겨냥한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이 쪼개지거나 일부 사업이 매각될 수 있다.

미국은 134년 전 세계 최초의 독점규제법인 셔먼법을 만든 나라다. 자유방임을 기본 이념으로 삼은 나라가 민간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법을 만든 것은 독점 대기업의 폐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록펠러의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과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AT&T를 분할한 것도 셔먼법이다. 미국 법무부가 PC 회사였던 IBM에 반독점 소송을 벌인 끝에 IBM은 소프트웨어를 외주사에 맡겼고, 그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성장했다. 법무부가 25년 전 윈도 독점으로 MS를 겨냥하자 MS는 윈도 호환성을 높였고, 그 기회를 잘 살려 성장한 기업이 구글과 애플이다. 셔먼법의 역사는 역설적으로 반독점법이 새로운 혁신의 촉진자임을 잘 보여준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던 빅테크가 이제는 경쟁을 저해하는 혁신의 걸림돌이 될 위기에 처했다. 빅테크는 언

론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연말 자사 기사를 AI 훈련에 사용했다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MS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빅테크는 규제해야 하겠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 100대 플랫폼 기업의 80%가 미국 기업이다. 반면에 유럽 기업은 2%에 불과하다. 미국이 빅테크의 독과점에 메스를 댄 건 여유가 있어서고, 유럽이 디지털 시장법까지 만들어 사전 규제에 나선 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다.

한국의 빅테크에 대한 불만은 주로 빅테크와 이용 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다. 유난히 자영업자가 많은 데다 플랫폼 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빅테크 플랫폼 간의 활발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넓혀 좋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구글 판결로 우리도 즉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선부르다. 유럽연합(EU)처럼 사전 규제에 나서면 토종 플랫폼이 잘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손흥민이 뛰어나다고 심판이 손선수만 쫓아다니며 규칙 위반을 감시하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나. 빅테크 규제 논의는 우리 사정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빅테크 플랫폼에는 아직도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빅테크에 '독점 기업' 판결... 언론사 저작권 침해 소송도 소비자·산업 발전 위해 한국 플랫폼 규제 아직 신중해야

안 그래도 OECD 1위 자살률, 올해 10% 더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가 수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 꼴이다. 지난해 자살한 사람(1만3770명)이 전년(1만2906명)보다 크게 늘자 정부는 자살위극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살 예방 통합 상담전화(109)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도 자살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발생한 배우 이선균씨의 비극과 청소년 자살 생중계 등의 여파를 주시한다. 유명인의 죽음에 모방 자살을 부른다는 '베르테르 효과'는 과거 배우 최진실씨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됐다. 거기에 자살 관련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위험성이 높아져 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20년 9만772건이던 자살유발정보 신고는 2022년 23만406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자해 사진 및 동영상은 4만2850건에서 12만2442건으로 폭증했다. 당국의 신속한 심의와 차단이 시급하나 현행 시스템이 도통 따라가지 못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면서 전 연령층이 극도의 정신적 갈등과 부담에 노출된 우리 사회의 특성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학생 자살의 경우 2019

년 140명에서 2021년 197명으로 늘었다. 가족 간 갈등(22.6%)이나 학업 문제(14.3%)가 주요 원인이었다. 자살 방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자살 다수가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사회 내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자살 관련 정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듯한 결과를 초래한다. 자살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선진국은 사회의 각 부문이 협력해야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때 자살률이 30명을 넘어섰던 핀란드가 대표적 사례다. 보건뿐 아니라 경찰과 교육, 지역사회 등 관련 당국이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 한때 자살률 수치가 심각했던 일본은 경찰청과 후생노동성이 관련 자료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도 통계청과 경찰청·보건복지부 등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나 아직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막중하지만 무관심한 단체장이 많은 실정이다. 국회에서 지자체별 자살 예방 노력을 평가해 발표하려고 하나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하인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의 오명에서마저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국가"(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승자의 저주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기업 세계엔 '승자의 저주'란 말이 있다. 인수합병(M&A)이나 경매 같은 공개입찰에서 승자가 되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비용을 쏟아붓는 바람에 위험에 빠지는 경우다. 한국 재계에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2000년대 중후반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따라 인수하며 재계 7위까지 도약한 금호그룹은 무리한 M&A가 독이 됐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되팔아야 했고, 결국 핵심 회사인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하며 무너져내렸다.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덕수 회장의 STX그룹은 범양상선, 대동조선 등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창립 10여 년 만에 매출 18조원이 넘는 재계 13위로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후 해운·조선업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고, 결국 백기를 들고 해체되고 말았다.

'승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한 기업들엔 승리를 위한 무리한 베팅, 부실한 재무구조, 허약한 펀더멘털 등의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단기 성공은 기업 분위기를 망가뜨렸다. 오만과 나태가 기업을 잠식했다.

눈앞의 승리만을 향한 돌진, 그 승리에 도취해 본분을 잊는 것이 어디 기업 세계뿐일까. 지금 국회를 장악한 170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꼭 그 꼴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승자독식'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차지부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추진, 법안 단독 강행 처리까지. 그들의 사전에 타협은 없다. 민주당은 방통위위원장 탄핵과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단일대오로 움직였다. 표면적 명분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자유'지만 속내는 'MBC 사수'다. MBC 최대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으로 MBC가 여론의 영향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공영방송이 집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역대 정권은 방송 장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 시절엔 비판하고 여당이 돼선 악습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KBS와 MBC를 다 장악하고서도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을 내줬지 않나. 결국 중요한 것은 방송이 아니라 민심을 얻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단체들이 파업조장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도, 현금 살포나 다름없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두 법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에 민주당으로서 무모한 일을 벌인 셈이 됐다. 그와 별개로 쟁교야 할 논점이 있다. 집권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의 책임감, 신뢰성, 유능함 같은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정부, 여당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실행하진 않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작동 방식

**민주당 폭주 속 22대 국회 파행
임대차 2법 실패서 교훈 얻어야
승자독식 정치는 민심 외면받아**

이다. 게다가 비판과 문제 제기에 귀를 닫은 입법은 반드시 탈이 난다. 반면교사가 2020년 7월 30일의 '임대차 2법' 처리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단 이를 만에 법안 상정과 국회 통과를 마쳤다. 전세 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야당과 시장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법은 시행되자마자 전세 품귀→전셋값 급등→집값 폭등의 파국을 초래했고, 결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핵심 요인이 됐다. '승자의 저주'였던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재연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민심은 싸늘하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27%, 필리버스터에 의존하는 국민의힘(35%)에 8%포인트나 뒤졌다.

물론 M&A에 성공하고도 '승자의 저주'에 넘어지지 않는 기업도 있다. 공통점은 더욱 겸손하게 재무구조와 펀더멘털을 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달라져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 반대와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승자의 저주'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수석는설위원

중앙일보

<p>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100% 재활용 종이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p>	<p>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	--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특전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 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 고국 7박 (노옴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 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일출발 \$899+항공
 4박 5일 동해권 금출발 \$999+항공
 5박 6일 서남+제주 일출발 \$149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일출발 \$2149+항공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강]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9/23~1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강]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대강] 10박11일 \$29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대강]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대강]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대강]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
 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11일 \$29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아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아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11,50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990+항공

4/14~4/20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 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28~5/06 정통 동유럽 9박10일 \$3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TMCI 고국 건강 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티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사원, 플로세움스, 파티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악어농장, 백만번위공원, 태극동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이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시, 왓알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데마피크, 호치민명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기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선평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국립공원, 자오궁, 101빌딩, 라오호계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철성담 해변, 일월담, 구죽문화춘, 아류래양 국립공원, 자우펀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윈더스,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공원, 차이타운, 센트사비, 실로스타비

Hong Jin-young
 홍진영 콘서트 티켓 판매처
 일시: 8월 31일(토) 8pm (개장: 6:30pm)
 장소: Live! Casino(21+ Event)
 문의: 레나고 (703-663-8534)

노동절 특선
 2박 3일 \$699 8월 31일 출발
 레치워스/나이아가라 워터스글렌
 3박 4일 \$950 8월 30일 출발 [대행버스]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출발: 9/16, 10/14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대행버스출발: 9/23

서부관광 미서부일주
 탐여행사의 자랑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옐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단체여행 할인]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천성/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벡
 3박 4일 \$950 8월 30일 출발
 노아의 방주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Harim

AUG. 8TH - AUG. 15TH, 2024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삼계탕 28.21 OZ

BUY 2 GET 1 FREE

\$19.98



SUHYUP

AUG. 8TH - AUG. 15TH, 2024



**Korea Jeju Frozen
Cutted Hairtail**

수협 한국산 제주 명품 은갈치

1.72 LB/BOX

\$27.99

HELLO!

AUG. 8TH - AUG. 15TH, 2024

**Stainless Steel
Food Container**

헬로! 스텐 도시락

20 X 14 CM - PINK/BLUE

\$4.99

EA

~~REG. 8.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August 8,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수리 필요 시 예상 견적 미리 확인하세요”

바이어가 자주 하는 질문들 집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진다. 첫집을 장만하는 이들이라면 더욱이 그렇다. 이 궁금증은 예산만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구입 전 몇 채의 집을 보는 것이 적당한지부터 주택 구매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처럼 집 구매를 결정하기 전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보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택 구입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액수가 오가는 거래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질문들은 주택 구매 전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바이어가 집 구매 전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다.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했다면 해당 주택에 보수가 필요한 곳, 혹은 건강에 유해한 위험 요소는 없는 지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unsplash.com 제공]

적당 오퍼가격은 지역시장 따라 달라 쇼핑 전 모기지 사전승인 받아둘 만

▶ 몇 채 봐야 하나
이는 웨딩드레스 쇼핑 시 예비 신부들이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은 없다. 첫 번째 입어본 드레스가 마음에 그리던 완벽한 드레스일 수도 있고 수십 벌을 입어본 끝에 간신히 원하던 드레스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하우스 투어에서 드림 하우스를 만날 수도 있고 몇 달간을 걸쳐 10채 이상의 집을 본 후에야 간신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도 있다. 또 몇 채의 집을 볼지는 바이어의 현 거주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임대 계약이 곧 끝나는 주택에 거주 중인 바이어라면 많은 매물을 보기 힘들겠지만 시간 제한 없이 천천히 집을 찾는 바이어라면 시간을 두고 많은 집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수도 큰 영향을 미친다.

▶ 클로징 기간은
바이어가 모기지 용자를 받아야 한다면 클로징까지는 대개 30~60일 정도 소요된다. 만약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다. 용자가 필요 없고 셀러 역시 자금 여유가 있어 빠르게 움직인다면 30일 내 클로징도 가능하다. 단 셀러의 상황에 따라 클로징까지 걸리는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 개조 비용은
면 구매 의사와 재정적 준비를 갖춰졌을 셀러에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 쇼핑 전 우선 고려 대상과 부차적인 고려 대상을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즉 어떤 바이어에게는 주택 위치와 학군이 필수 조건이 될 수 있고 집 연식이나 크기는 부차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 고려 대상을 정해두면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어 집 쇼핑에 드는 발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주택의 개조 범위와 위치, 시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개조가 필요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면 중개인에게 리모델링 업체를 소개받아 대략적인 견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리 개조 비용을 파악하면 매매가를 협상할 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개조 비용이 10만달러일 때와 30만달러일 때 최종 집값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위험요소 확인은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다면 해당 주택에 납 페인트, 라돈, 곰팡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구입 후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대출 승인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문제들은 거주자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문서 제공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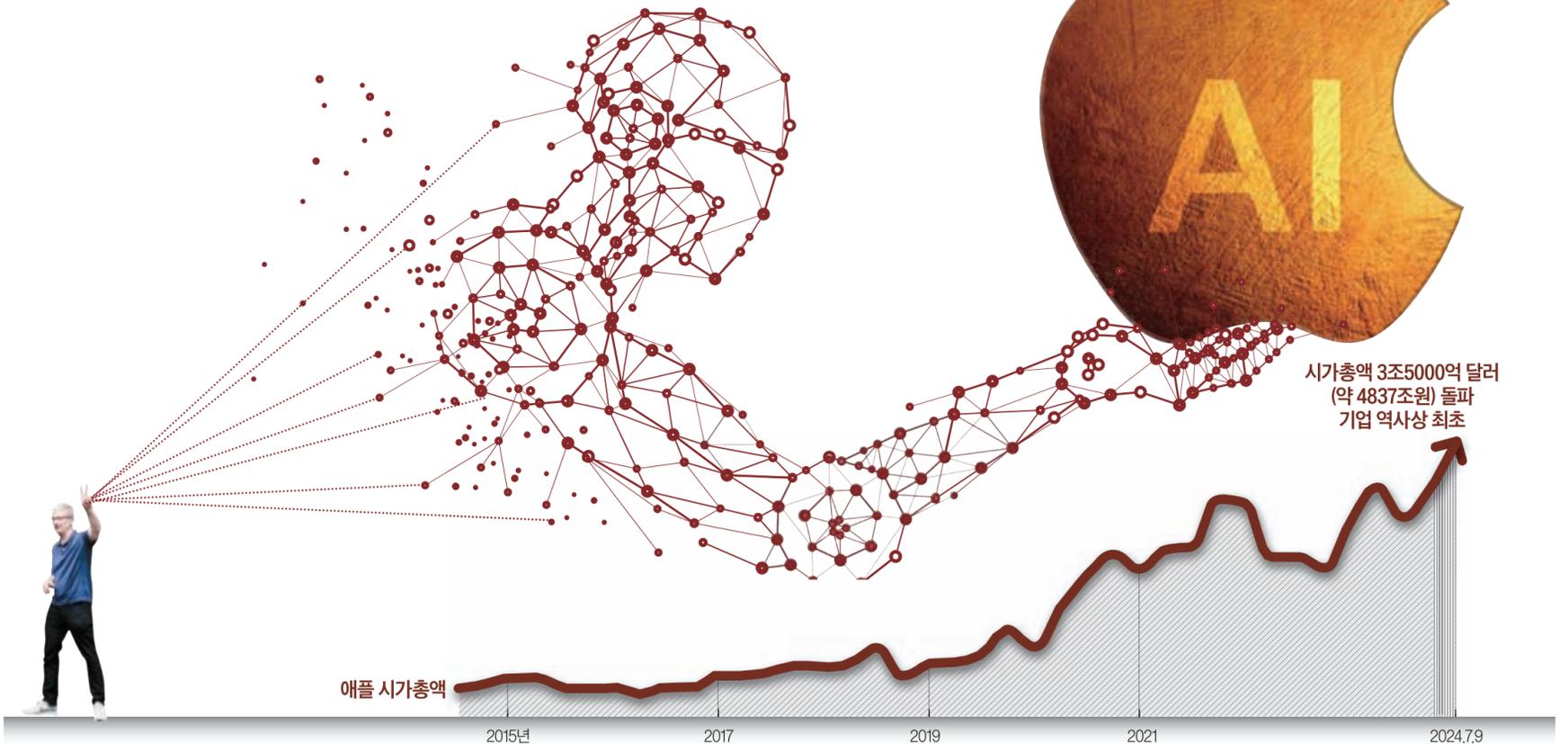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시총1위 탈환한 애플... 공동 창업자도 몰랐던 'AI 신무기'

(워즈니악)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의 새 인공지능(AI) 전략 '애플 인공지능'이 지난달 10일 애플 세계 개발자회의(WWDC)에서 마침내 공개됐다. 애플은 오픈AI와 협업해 음성 비서 '시리'에 AI 기능을 넣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혹시, 애플이 AI를 외주화하려는 건가'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기대와 달랐던 건 분명했다.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실망스럽다고 반응했고, 언론들도 "혁신을 포기한 애플"이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구글은 물론, 먼저 'AI 폰' 갤럭시 S24를 낸 삼성보다도 애플이 뒤처졌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애플은 이 분위기를 한 달 만에 싹 바꿔놨다. 지난 10일 애플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3조5000억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에 내준 시총 1위 자리도 되찾았다. 애플 AI의 '한 방'은 무엇인가. 삼성 갤럭시의 AI 전략과 애플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분석해봤다



'애플 AI'... 챗GPT가 전부 아니었네
애플 인공지능 발표 직후, "천하의 애플도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애플이 자체 AI 모델을 준비하지 못해 오픈AI에 주도권을 내준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끝날 애플이 아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AI는 크게 클라우드(서버) AI와 온디바이스 AI로 나뉜다. 온디바이스 AI는 사용자 기기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 없이 기기에서 AI 연산이 끝바로 처리된다. 속도가 빠르고 보안 면에서도 유리하지만, 클라우드 AI에 비해 데이터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작성한 글을 편집·요약하는 작업 정도는 온디바이스 AI로 할 수 있지만, 이미지·동영상 생성은 서버를 통하는 클라우드 AI가 처리해야 한다. 애플도 온디바이스·서버용 AI 모델을 각각 자체 개발해왔다. 지난해 초부터 코드명 '에이잭스(Ajax)'로 진행한 자체 LLM 기반 프로젝트다. 애플의 온디바이스 LLM은 최대 30

억개의 매개변수를 보유했는데, 현재 갤럭시 기기에 탑재된 구글의 온디바이스 AI '제미나이 나노'의 매개변수는 18억 개 수준이다.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LLM의 성능도 좋다. 다만, 기기의 데이터 처리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게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램 짤돌이'로 유명한 애플이 울가을 내놓을 아이폰16 기본 모델부터 메모리 반도체 램(RAM) 용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IT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온디바이스 AI로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AI와의 '불안한 동맹'

애플 AI의 성능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타사와 협력을 극도로 꺼리던 애플이 오픈AI와 손잡았다는 것 자체가 애플 AI 경쟁력 부족을 반증한다. 애플은 아이폰 등 기기 사용자 요청을 대부분 자사의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에서 처리하지만, 일부 까다롭고 복잡한 질문은 챗GPT로 보내

기로 했다. 애플 인공지능의 모자란 AI 성능을 챗GPT로 보완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애플은 오픈AI에 챗GPT 이용료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성도 높기로 유명한 애플 사용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오픈AI에 열어준 것만으로도 비용은 충분히 치렀다는 계산일까. 어쨌든, 애플만이 가능한 배짱 거래다.

비즈니스에서 '영원한 동맹'이란 없다. 챗GPT는 애플에 일종의 디딤돌일 뿐이다. 애플은 자체 온디바이스 AI의 매개변수를 70억개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IT업계에서는 애플의 자체 AI 모델이 완성되면 오픈AI와의 동맹도 끝날 것으로 본다.

숨은 무기 '애플 클라우드'

애플은 가능한 모든 기능을 온디바이스 AI에서 처리하고 싶겠지만, 막대한 데이터가 요구되는 이미지·영상 생성은 당분간 클라우드 AI의 힘을 빌려 처리해야 한다. 애플이 최근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배경이다. 여기서부터 애플의 장기가 발휘된다.

애플은 데이터 센터에 자체 설계 반도체를 탑재하기 시작했다. 아이패드·맥북에 사용되는 애플의 M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칩이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들어간다. 한 마디로 클라우드 AI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의 칩과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 칩 모두를 애플은 자급자족하려 한다. 이는 모바일 패권 전략을 애플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모두 자체 개발해 구동하는 폐쇄적 수직계열화 방식이다. AI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운영체제(OS), 기기 완제품과 서비스까지 '애플의 AI 생태계'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은 삼성도, 구글도, 엔비디아도 따라하기 힘든, 전 세계에서 애플만 가능한 전략이다.

"문제는 보안이야!"

애플 'AI 수직계열화'의 강점은 또 있다. 보안이다. 애플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애플 인공지능을 소개하며 가장 강조한 지점도 '보안'이었다.

당장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EU AI법(AI Act)을 2년 내 전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보안에 실패한 AI는 각국 정부의 철퇴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모두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애플의 강점이다. 애플은 자체 AI 반도체가 탑재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개인 AI 처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클라우드 인공지능 시스템(PCC-Private Cloud Compute)'로 데이터를 보호하려 한다. 애플은 PCC를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등 사용자 기기와 서버 간 이동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개인 정보를 서버에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대응은

삼성은 구글 등과 손잡는 개방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PENDING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채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 4/ 화 3.5/ 차고2, 코너집, 굿 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반도체 캐즘 위기? ... “투자 계속되는 한 회복세 이어질 것”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블랙 먼데이’ 이튿날인 6일 한국과 일본 반도체 기업 주가는 바로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발(發) 경기침체 및 인공지능(AI)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우려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알파벳(구글)·애플 등 빅테크 주가가 4~6%씩 떨어졌지만, 아시아 반도체 기업 주가는 하루 만에 회복세에 오른 것이다.



반도체 주가 반등

삼성·하이닉스 하루 만에 다시 올라 폭락 원인, 산업 아닌 증시 흐름 탓 “수요 계속 늘어... 성장 가능성 커”

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1.54%, 4.87% 상승해 전날 하락(-10.3%, -9.87%)에서 일제히 반등했다.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후공정 업체 하나마이크론 주가도 각각 전날 대비 4.87%, 7.34% 올랐다. 대만 증시에서 전날 8.3% 하락했던 TSMC도 이날 7.9% 상승했다.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주가는 폭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5일 하루 새 18.5% 하락했던 도쿄일렉트론 주가는 6일 17% 상승했고, 15.8% 떨어졌던 아드반테스트 주가도 하루 만에 14.7% 상승했다. 소재 회사인 스미모토·세키스이 등도 두 자릿수 폭으로 상승했다.

전날 폭락 원인이 반도체 산업 본연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 경기 상황과 투자 심리 위축에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또한 당장 AI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반 서버용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살아난 만큼 회복세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해의 감산 효과로 최근 메모리 수요가 회복되고 AI 반도체 투자도 계속되

고 있어 업황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D램 등 기존 메모리와 달리 고객과 협의한 물량을 생산하는 식이어서 시장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측면도 있다. 현재 HBM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HBM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엔비디아에 이은 AI 가속기 시장 2위인 AMD도 자사 GPU(그래픽처리장치)에 HBM을 쓴다.

중국 반도체 주가는 블랙 먼데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SMIC 주가는 최근 일주일 간 4% 남짓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세계

적인 AI·반도체 밸리에서 빛겨나 제자리걸음 하던 중이라 글로벌 증시 폭락 영향도 덜했다. 미국의 기술 붐쇄로 ‘반도체 자립’을 추진 중인 중국이 글로벌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미국 빅테크들은 여전히 AI 투자를 늘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집계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메타·알파벳 등의 올 상반기 AI 관련 투자는 1060억 달러(약 146조원)로 전년 동기보다 50% 증가했다. 대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 및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AI 모델 훈련·추론 전용 칩 구매 등이었다. FT는 “빅테크의 AI 투자가 연말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황수연·이희권 기자



안병익의 마켓 나우

유럽의 그린딜 계속된다

“취임 100일 안에 새로운 청정산업딜(a new Clean Industrial Deal)을 제시하겠다”

지난달 1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사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에서 새로운 청정산업딜을 강조하며 무난히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오는 1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기에 내년 3월 초까지 청정산업딜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듯하다.

그의 연설을 찬찬히 뜯어보면 5년 전 제시했던 그린딜을 새롭게 포장한 내용이다. 20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그린딜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그는 ‘그린 철강’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집중적인 산업과 인프라에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위해 관련 산업의 허가와 경쟁입찰 등을 신속 처리할 수 있게 유럽 차원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진행 중인 순환경제법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산업의 지원에는 EU 차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경쟁력펀드(competitiveness fund)가 그 역할을 맡는다. 내년부터 EU 27개 회원국은 2028~2035년 EU 예산의 총액과 주요 지출 순위를 정하는 협상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EU 예산을 증액해 경쟁력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월 초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이민·반이슬람, 기후위기 대응 반대를 내세운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의석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EU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그린딜이 계속해서 실행되기 어렵다는 예상이 있었다. 연임된 폰데어라이엔의 연설과 의회 내 역학 구도를 보면 속도는 조절되어도 그린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럽의회 연설 후 진행된 표결에서 401표를 얻었다. 전체 720석의 과반이 필요했기에 361석이면 충분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의회 내에서 제3의 정치그룹이 된 ‘유럽을

위한 애국자(Patriots for Europe)’와 접촉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 최다 지분을 보유한 그룹이다. 그는 녹색당과 만나 그린딜 지속을 약속했고 이들의 지원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연임한 집행위원장은 농부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올 초부터 EU 회원국 농민들이 브뤼셀에 집결해 기후위기 대응 반대 시위를 계속했다. EU는 시위에 굴복해 메탄가스 감축량 축소 등 속도 조절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도 기후적응 계획을 짤 때 농부들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2026년 도입되는 탄소조정세에 따라 철강과 시멘트 산업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규제 강대국 EU는 앞으로도 환경규제를 계속 제정할 것이기에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 1번 ‘바이어’에서 이어집니다

▶ 오피 가격은

이는 시장 상황과 셀러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LA처럼 매물은 한정돼 있고 바이어는 많다면 오피 시 리스팅 가격 이상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리스팅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셀러가 빨리 집을 팔기 원한다면 낮은 가격도 수용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 총비용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이해 없이 집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선 집값 외에도 클로징 비용을 비롯해 재산세, 주택 보험, 유지 보수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각각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클로징 비용은 주택 구매 가격의 2~5% 정도 잡으면 된다. 만약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구입한다면 관리비(HOA)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 형 협업으로 먼저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열었다. 올해 1월 공개된 AI폰 갤럭시S24는 “안드로이드폰이 경쟁사인 애플보다 기술적 우위를 제공한다”는 외신 평가를 받았다. 애플의 AI가 ‘온디바이스·내재화’로 가는 여정이라

면, 삼성은 협력·기능·보안에서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AI’를 지향한다.

삼성엔 “안드로이드 동맹”인 구글과 협력해 AI폰을 내놨다. 자사 감성인 하드웨어에 집중하면서도 운영체제(OS)와 앱은 구글 힘을 빌렸다. 프로세서

(AP)는 세부 모델에 따라 퀄컴의 스냅드래곤 8과 삼성 엑시노스2400을 함께 탑재했다. AI 모델은 삼성 자체 AI인 ‘가우스’와 구글 ‘제미나이’를 심었다. 호평받는 AI 기능 중 하나인 ‘서클 투 서치’도 구글과 함께 개발한 것이다.

삼성엔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AI’를 지향한다.

개인정보 보안에서는 온디바이스 AI의 감정이 뚜렷한데, 삼성은 이를 자체 보안 플랫폼 ‘삼성 Knox’로 강화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

폰에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식으로, 만일의 외부 공격 시에도 중요한 데이터를 빼내어 가져갈 수 없도록 보안 성벽을 튼튼히 쳐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권·황수연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p>주6일 프렌차이즈 \$32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p>	<p>주6일 Deli \$370K 인컴 \$2만 몽고메리 메릴랜드</p>	<p>주6일 Deli \$180K 인컴 \$1만 PG 메릴랜드</p>	<p>주6일 Deli \$25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p>	<p>프렌치아이즈 / 카워시 / 리커</p> <p>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p>
--	---	---	---	---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전세 사기피해 회복 모델을 제시한 탄탄주택협동조합

1년 만에 조합원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93.6% 돌려줘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만9621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검찰은 사기를 저지른 1600여 명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심에서 사기죄 최고 형량인 15년형을 받은 사람도 상당수다. 처벌은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지지부진하다. 정치권에선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주장해 온 '선구제·후구상' 방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 통과 때 일부 유예된 경매중단 조치는 속속 풀리고 있는데, LH 중심의 매입 임대 등의 대책은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피해 회복에 성공한 사례가 등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난 3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 테이블)이 올해 조합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7명의 발기인과 21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된 탄탄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조합원 이사를 선출했다. 또 일부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전환해 견인 월세 중사업비를 제외한 400여 만원의 수익금을 '처우 출자금'으로 적립하기로 의결했다.

[사진 탄탄주택협동조합]

동탄에 떨어진 전세 사기 폭탄

2023년 봄 경기 화성의 동탄 신도시도 전세 사기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박오씨 부부와 지오씨 부부가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집중 매입했는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피해자가 311명, 피해 금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10평짜리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던 30대 직장인 나모씨도 피해자 중 한명이었다. 나씨는 그해 4월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오피스텔을 인수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다. 나씨 오피스텔 보증금은 1억6200만원. 그때야 수수문을 해보니 매매가는 그에 한참 못 미쳤다.

쉽게 결정을 못 하던 차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대응한다는 정보가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떴다. 경기도가 지원한다며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도 개최했다. 나씨는 "그때는 조합이 뭔지도 몰랐고, 솔직히 또 사기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기억했다. 고심 끝에 21명이 조합 참여를 결심했다. 조합원 H씨(20대 후반 여성 직장인)는 "오피스텔이라 떠안기 싫었는데, 경기도가 지원한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지"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게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탄탄)이 설립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 7월, 조합은 모든 조합원과 보증금 4800만원의 반전세 계약을 맺고,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을 돌려줬다. 4800만원은 화성시가 보증하는 최우선 변제금(선순위채권과 관계없이 세입자에

사회주택협회 도움으로 21명 조합 결성, 소유권 넘겨받아 반전세로 재계약, 조합이 대출받아 보증금 차액 반환 선순위채권 없어 추진 쉬운 사례, 전세보증 거부 위기도 유일 해법 아니지만, 자구 모델도 있다는 인식 공유되길

게 우선 돌려주는 보증금)과 같은 금액이어서 조합이 사라져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 일부는 이사하며 나머지 보증금도 받았고, 그 자리에 전세사기와 상관없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

협동조합의 작동 방식

조합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증언처럼 탄탄 조합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은 아니다. 처음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유독 동탄에서 이런 모델이 나왔는지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뒤편 사회주택협회 사무실에서 김수동 탄탄 이사장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물어봤다. -피해회복을 모두 완료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합을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조합 설립을 처음 구상한 것은 사회주택협회입니다. 주택협동조합, 공유주택 등 구성원이 참여해 공동체적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단체들의 협의체죠. 지난해 초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터지자 협회도 뭔가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협동조합 형태였습니다."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지역 중에서 동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회 차원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했죠. 그런데 마침 동탄은 피해 주택이 모두 오피스텔이고, 대출금이나 세금 등 선순위 채권이 없는 독특한 성격이었습니다. 피해자도 1인이나 2인의 청년층 가구가 대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에서 이 방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줘서 가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쉽게 참여했나요. "외부에서 갑자기 찾아와 협동조합을 하자고 하니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이미 한번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라 또 사기 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강했습니다. 그때가 5월 초였는데 피해자들은 6월이 되기 전에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조합부동산산계 기준일인 6월이 되면 국세청이 1순위로 가져가는 세금 채권이 생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 지원책은 아직 압박 단계에 머물렀죠.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낫고 일부 피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 지원 약속도 있으니 믿어보자는 흐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제시했나요. "우선 조합이 보증금 채무를 떠안

는 대신 임대인에게서 소유권을 넘겨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주변 전세) 시세의 90%로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죠. 나머지 10%는 피해자들이 출자금으로 조합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굳이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주는 한도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원래 보증금과 주변 시세에 맞춘 재계약 금액과의 차이만큼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반환은 확실히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계산해보니 손실액이 원래 보증금의 6.4% 정도였습니다. 보증금 1억이면 640만원폴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소유권을 직접 넘겨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결정한 피해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 등기와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죠. 조합은 어쨌든 1~2년간 안전하게 살다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고, 이전비용도 조합이 부담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됐나요. "5월 하순에 발기인 7명과 조합원 21명으로 설립당기를 하고 곧바로 집주인에게 통보해 조합원이 사는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구상대로 조합원들과 재계약까지 마쳤는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조합원이라 사실상 임대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였죠. 조합원의 지분은 보증금의 10%인 출자금밖에 없고, 전세 사기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처음 구상이 다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구조를 바꿨습니다. 화성시가 보증하는 최우선변제금 규모인 4800만원으로 보증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돌려준 뒤 그만큼을 반전세로 돌리는 겁니다. 예상치 않은 목돈이 필요했는데 화성시, 화성하남읍 신협 등과 협약을 맺고 연 3%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계속 살고 있나요. "지금까지 13명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했고, 8명은 보증금 4800만원의 반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조합원이 이사할 때 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금도 찾아갈 수 있지만 그대로 두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

다. 나중에 적립금이 쌓이면 돌려받는 출자금도 커지니까요."

-탄탄의 모델은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요.

"우연히 여러 조건이 잘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진이 쉽지 않았겠죠. 우리도 협동조합 모델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모두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구제하는 방식도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조합은 돌려줄 보증금 10억원과 대출 11억원을 안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도 월 282만원인데 매달 677만원의 월세가 들어오니 연간 4600만원 정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일부를 매각하면 10년 후 부채 청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전히 조합 소유가 된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유주택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이 살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조합원 커뮤니티 활성화에 신경 쓰려고 합니다. 여러 피해지역에서 문의가 오는데, 성심껏 들어주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도 할 생각입니다."

한계 분명하지만, 희망을 발견

김 이사장이 강조했듯이 협동조합 모델이 만능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 운영에 대해 아는 사람이 피해자 가운데 있어야 한다. 탄탄의 경우 주거운동 차원에서 사회주택협회가 발기인으로 동참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선순위채권이나 금융 부채가 많은 경우, 주택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할 경우 참여자의 이해가 충돌해 조합을 만들기 어렵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믿음이다. 취재 중 연락이 닿은 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저 조합이 정말 약속을 지키길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이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의 몫이다. 탄탄도 경기도가 적극 지원을 약속한 덕에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반환 보증금을 위한 저리 대출도 이뤄진다면 훨씬 원활하게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선구제·후구상이 무척 중요하지만 그거 전부는 아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지원이 많은데 국회에 책임을 돌린 채 방관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최현철 논설위원

숯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SHORT SALE - Burke Single

숯세일!!

Burke 2 Car Single 3 Br 2 Bath 단층 1,900SF
\$630,000 (시세 78만)

Vienna End Unit Town

숯세일!!

4 Br 3.5 baths, 1,500sf
\$630,000 (시세 78만)

FAIRFAX Town

차고1, 1,700SF 3 BR 4 BATH, BUILT 1999
\$730,000 GOOD CONDITION

Manassas Park Condo

2 Bed 2 Bath Elevator
1 Car garage 1500SF, 센터빌 10분거리
\$320,000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james2424500@yahoo.com

571.242.4500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870; MD 2501870; NC L-25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69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번소 주변을,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셀러-집팔때 신경쓰기 싫고, 부동산이 주인 입장에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기
원할때,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바이어-매물 부족, 이자율 상승으로 힘든 바이어 마켓에 어느때보다 전략이 절실한 때 입니다.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 SALE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이자율 하락. 재용자의 기회?

도무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듯하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모두가 예측한대로 이제는 곧 점진적인 이자율의 하락이 예상되는 듯하다가, 또 갑자기 고용시장발 불안정한 지표들이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주식시장의 폭락과 이자율의 급하락을 한순간 경험하기도 하고, 바로 다음날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듯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또 어제 하락한 이자율 만큼 다시 급상승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가 금융시장 전반에서 발견되는 형국이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예측이 힘든 불안정한 시장을 살아가고 있는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가오는 9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이다. 오히려 얼마만큼의 폭으로 인하를 단행할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즈음, 모기지 이자율 또한 다행히도 하락 안정화하는

추세이다. 이미 꽤 오랫동안 6-7%를 상회하는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왔던 터라, 최근 이자율의 하락으로 다시 경험하게되는 5%대의 이자율은 비록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한 아마도 두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2-3%대의 초저금리까지의 환상은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노릇을 할것으로 보인다.

늘 가장 많이 고객들로부터 받게되는 질문이 바로 과연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인데, 과연 그 누가 딱히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릴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를 안고하는 예측은 전망이라기보단 희망일것이다. 항상 정확한 예측과 조언은 바로 현실에 충실하자이다. 다음달 또는 내년의 이자율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막연히 더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올라갈수 있는것이 이자율이고,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또 한동안 이자율이 내리지 않겠지하고 포기하고 있던 차에 어느날 갑자기 이자율 하락의 소식이 전해져 온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충실하지는 의미는 다름 아닌 지금 내가 가질수 있는 최선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과연 이득

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지 또 지금 내가 찾은 길이 지금당장 정확한 이득이 되는지 현실에 충실해서 판단을 하는것이 가장 틀림이 없는 올바른 판단을 이끌것이다.

불과 한달여 전만해도 6% 후반대에서 7%를 육박했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슬금슬금 하락하더니 단 일주일 사이에 큰폭으로 하락해서 이제는 6%아래로 내려가는 오랜만에 다시 맞이하는 5%대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소식은 많은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온다. 최근 다시 하반기 주택구입 문의뿐 아니라 재용자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것이 바로 이를 반증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최고점을 찍었던 7%대의 이자율에서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겐 다시금 30년 고정 5% 후반대의 이자율로의 재용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자가 갖고

있는 남은 주택용자 상환금액과 현재 갖고 있는 이자율에서의 이자율 하락 폭에 따라 재용자를 통한 이자비용절감의 차이는 각기 다르겠지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자율에 비해서 재용자를 통해 대략 1%정도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재용자를 고려할때 빠지지 않고 염두에 두어야 할부분이 바로 재용자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자비용절감에서 나오는 손익분기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인데,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현실에 충실해서 지금 내가 얻게되는 이득과 이러한 이득을 얻기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현명하게 잘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재용자를 통한 주택비용절감이 가계재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어서 전반적인 불경기를 대비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문의: 703-868-7147 배준원

ADU 장점 및 건설 단계

주택 소유자나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넓은 부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DU(Accessory Dwelling Unit-주거 보조 유닛)를 짓기 위해서다.

ADU는 주택 위기의 방안으로 떠오르며 주당국과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DU는 기존 주택 부지 내에 별도의 생활 공간을 추가하는 개념이다. 보통 별채나 차고 개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설계되며, 거주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춘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ADU 건설을 장려하는 여러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건설 절차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각 카운티에서 건축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ADU는 소형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가족 구성원, 학생, 젊은 직장인, 노인 등에게 주택 옵션을 제공한다.

또 임대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고정 수입이 필요한 은퇴자나 부동산 투자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무엇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여러 단계를 거쳐 ADU를 건설한다. 첫 번째로 초기 계획 및 조사를 한다. 지역 규제를 확인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한다. 시청이나 카운티 정부 플래닝 디파트먼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zoning 규제와 ADU 관련 법규

를 확인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현장을 조사한다. 전문 측량사를 고용해 부지를 측량하고 건축가와 협력해 지형, 배치, 접근성 등을 평가한다. 유틸리티 연결 가능 여부도 확인하고 해당 공급사와 협의한다.

세 번째는 설계 및 계획이다. 건축가를 고용하여 설계와 내부 구성을 구체화하고, 계획을 제출해 예비 검토를 받는다.

네 번째 단계는 퍼밋 신청 및 승인 절차다. 시청 또는 카운티 플래닝 디파트먼트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건축 퍼밋 신청 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 추가 자료 요청이나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제 건설이다. 부지 정리, 기초 작업, 구조물 건설, 유틸리티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한다. 벽체, 지붕, 문, 창문 등의 구조물 설치를 수행하고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의 유틸리티를 연결한다. 내부 인테리어 및 주방, 욕실 설비 등도 설치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중간 점검 및 최종 검사다. 빌딩 인스펙션 디파트먼트에서 나와 중간 검사를 한다. 지역 당국의 중간 검사와 최종 검사를 통해 모든 건물 코드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가구 및 장비를 설치하고 최종 청소를 마친 후 입주한다. 집에 남은 부지가 있다면 ADU를 고려해볼 만하다.

존 라-콜드웰뱅크베스트부동산

부동산의 가치와 크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500만 달러)의 두 건물이 각 1만 스퀘어피트와 5만 스퀘어피트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봅시다.

▶건물의 크기와 입주자 수

1만 스퀘어피트의 건물은 입주자가 10명으로 각 입주자당 평균 1000스퀘어 피트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5만 스퀘어피트 건물은 입주자 40명으로 각 입주자당 평균 1250스퀘어 피트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입주자의 수와 건물의 규모는 건물 관리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1명이 나갈 때 작은 건물과 큰 건물의 수입 타격은 다릅니다. 작은 건물의 투자자는 수입의 10%가, 큰 건물의 투자자는 2.5%의 수입이 감소하는 셈입니다.

▶위치 프리미엄

작은 건물이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코너에 위치하며 높은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특징이라고 가정합시다. 큰 건물은 도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좋은 상업지구 안에 있을 경우, 건물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건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건물이 장기

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입 분석

건물의 가격이 동일하고 렌트 수입도 같고 전세를 두면, 작은 건물은 스퀘어 피트당 렌트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큰 건물은 스퀘어 피트당 렌트비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렌트 수입이 동일하면 작은 건물은 스퀘어 피트당 더 높은 렌트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큰 건물은 더 많은 공간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셈입니다.

▶투자 위험성 평가

건물의 공실 위험 및 비용 증가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실 위험의 경우 작은 건물은 한 입주자가 나갈 경우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큰 건물은 한 입주자가 나갈 경우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건물은 큰 건물 대비 스퀘어 피트당 높은 렌트비로 인한 수익성을 제공하지만, 공실 발생 시 큰 리스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에 따른 결정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공실 발생 시 리스크가 적은 큰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리스크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작은 건물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렉스 유-CBRE Korean Desk 대표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트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SOLD</p> <p>Bowie</p> <p>\$645,000</p> <p>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p> <p>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SOLD</p> <p>Rockville</p> <p>\$280,000</p> <p>콘도</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화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59,000</p> <p>타운홈, 방4, 화3,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950,000</p> <p>싱글홈, 방5, 화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p> <p>콘도, 방2, 화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p> <p>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COMING SOON</p> <p>Rockville</p> <p>싱글홈, 방5, 화2, 차고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p> <p>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Elkridge</p> <p>월 \$2,400</p> <p>타운홈 방3, 화3</p>	<p>Sliver Spring</p> <p>월 \$3,500</p> <p>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p> <p>콘도 방2, 화2</p>	<p>Hanover</p> <p>월 \$2,650</p> <p>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p> <p>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p> <p>콘도 방2, 화1</p>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K로봇들의 '심쿵' 로맨스... 브로드웨이도 사로잡을까

'어쩌면 해피엔딩' 11월 미국 개막
국내서 8년 롱런한 창작 뮤지컬
인간만이 느끼는 설렘 담아내
큰 무대 상륙 위해 '스케일' 키워
새로운 배역 등장, 조연진 보강

“착한 우리 올리버/ 말 잘 듣는 올리버”라는 옛 주인 제임스의 칭찬이 세상 전부처럼 좋았던 가사도우미 ‘헬퍼봇’ 올리버, 인간에 더 가깝게 업그레이드된 대신 내구성이 떨어진 ‘헬퍼봇’ 클레어. 이들은 은퇴한 고물 로봇들의 아파트에 산다. 충전기가 고장난 어느 날, 클레어는 이웃의 올리버를 만나면서 낯선 감정에 눈 뜨는다. 인간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사랑의 설렘 말이다.

지난 6월부터 다섯 번째 시즌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내용이다. 2016년 초연 이후 한국뮤지컬어워즈 6관왕(2018)을 차지하는 등 중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성공 신화로 자리매김한 이 뮤지컬이 올 가을 미 브로드웨이에 상륙한다. 뉴욕 1000석 규모 대극장 ‘벨라스코씨어터’에서 10월 16일부터 프리뷰를 거쳐 11월 본 공연을 개막한다.

지난 4월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토니상 의상디자인상을 수상한 ‘위대한 개츠비’, 지난 6-7월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한 ‘마리 퀴리’에 이어 뮤지컬 본고장에서 또 한번 한국 뮤지컬의 날개를 펴게 됐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순수 창작 이야기로 해외 공연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2024 K-뮤지컬 국제마켓’에 강연자로 참석한 미국의 공연 저널리스트 고든 콕스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지만 ‘어쩌면 해피엔딩’(한국판)을 보고 울었다”면서 “‘위대한 개츠비’가 한국 공연 산업의 위상을 많이 올려줬는데, ‘어쩌면 해피엔딩’까지(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하면 한국 작품·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번지점프를 하다’ ‘일 테노레’ 등 창작 뮤지컬을 잇따라 성공시킨 ‘윌휴 콤비’, 작곡가 윌 애런슨과 박천후 작가의 작품이다. 제즈·클래식을 녹여낸 어쿠스틱 사운드에 특유의 서정적 감성을 실어냈다. 영국 록밴드 ‘블러’ 멤버 데이먼 알반의 솔로곡 ‘에브리데이 로봇’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작품은 2015년 트리아아웃(시합 공연)부터 전화 매진을 기록했다. 이듬해 한국 초연과 함께 영어 대본을 완성해 2020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영어 버전 트리아아웃을 올렸다. 영어 버전도 안드로이드 로봇이 일상화한 21세기 후반, 서울 외곽 고물 로봇들의 아파트가 배경이다.

한국판 공연을 기획·제작한 CJ ENM에 따르면 다음달 8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에서 공연하는 다섯 번째 시즌도 94.1%의 유료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터파크 예매관객 평점도 9.9점(10점 만점)에 달한다.



1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두 주인공은 올리버의 옛 주인 제임스를 찾아 제주도도 여행을 떠난다. 시즌5에 합류한 배우 윤은우(왼쪽)와 박진주. 2 클레어를 만나기 전 올리버는 제임스가 남긴 LP플레이어로 제즈를 듣고 음악잡지를 보는 낙으로 살아간다. [사진 CJENM]

선율에 맞춰 제임스·제즈싱어·모델 주인공 등 1인 다역을 맡는 멀티맨도 이런 사랑의 감흥을 거둔다.

박천후 작가는 전화 인터뷰에서 “친한 친구가 앞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삶은 유한하고, 상실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하며 이 작품을 쓰게 됐다”며 “로봇을 주인공으로 삼은 건 점점 시니컬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사는 단순하고 순수한 감정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브로드웨이 공연은 한국보다 스케일을 키운 대극장 규모다. 실화 토대 시대극 ‘퍼레이드’로 지난해 토니상 베스트 리바이벌 뮤지컬상을 받은 연출가 마이클 아덴과 ‘윌휴 콤비’가 8년간 개발 작업에 매달렸다. 한국에선 멀티맨 배우 한 명이 많은 역할들을 분리해 제임스 역할은 동양계 배우가 맡게 된다. 한국 공연에 없던 제임스의 아들, 클레어의 주인도 등장시켜 주인공들의 전사를 보장했다.

박 작가는 “현지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을 가미했다. 한국어판에서 미학성을 고려한 가사를 썼다면, 영어 가사는 라임이나 언어유희, 직접적인 설명이 도드라진다”면서 “메시지나 정서는 똑같이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쩌면 해피엔딩’의 넘버는 조곤조곤 섬세하게 노래하는 게 특징인데, 뮤지컬의 전달 방식이 다양하다는 걸 브로드웨이에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나원정 기자

부품 단종으로 남은 수명이 정해진 로봇들의 애뜻한 설렘이 사춘기 풋사랑 같다가도, 예고된 이별이란 점에서



치매 부부의 환혼 로맨스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피아노·바이올린·비올라·첼로·드럼으로 구성된 6인조 밴드의

가쁜한 이상혁, 공동 3위로 예선 통과

‘스마일 점퍼’ 이상혁(28·용인시청)이 가볍게 결선에 진출했다.

이상혁은 7일(한국시간)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7을 2차 시기에서 넘어 공동 3위로 결선에 올랐다. 쉐비 매규언(미국)이 유일하게 실패를 기록하지 않아 1위, 2m27을 한 번에 넘은 해미시 커(뉴질랜드)가 2위를 기록했다. 결선은 11일 오전 2시에 열린다.

이번 대회 높이뛰기에는 31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기존 기록은 2m29. 그러나 2m27에서 상위 12인이 가려지면서 예선이 끝났다.

우승 후보이자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인 최강자 무타즈 바르심(카타르)과 장마르코 탐베리(이탈리아), 최근 기세가 좋은 커도 결선에 올랐다. 다만 메달을 다툴 것으로 보였던 주본 해리슨(미국)은 2m24를 넘지 못해 탈락했다.

이상혁은 바르심과 함께 A조에서 경기했다. 14번째 순서로 나선 이상혁은 첫 번째 시기에서 2m15를 가볍게 넘었다. 두 번째 높이인 2m20도 한번에 넘었다. 경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여유롭게 그늘에서 누워 휴식을 취하면서 준비했다. 2m24도 실수 없이 넘은 이상혁은 “가자!”라고 환호성을 지르

며 가슴을 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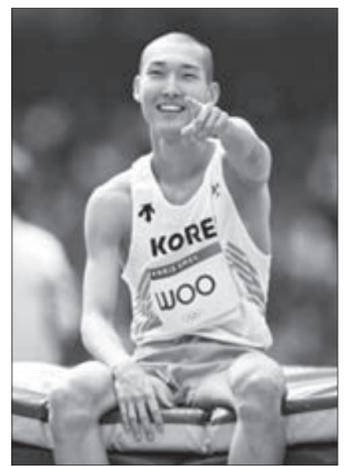
14명의 선수가 2m24를 넘으면서 2m27에서 결선 진출자를 가렸다. 이상혁은 첫 번째 시기에선 바에 걸렸지만, 두 번째 도전에선 성공한 뒤 결선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이상혁은 “지난 3년 동안 준비한 것의 50%를 보여줘서 행복한 하루다. 예선도 결선같이, 결선도 결선같이 뛰자고 생각했는데 잘 마무리해서 좋다”고 말했다. 2회 연속 결선행에 대한 질문에 “나이스”라고 답하며 웃은 그는 “아직 결선이 남았기 때문에 이를 동안 잘 휴식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회는 조개껍데기로 만든 친

환경 보라색 트랙을 쓴다. 이상혁은 “다른 선수들은 보조 경기장에서 훈련했는데, 나는 (이 트랙을) 오늘 처음 밟았다. 그런데 김도균 감독님이 ‘너한테 잘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밟아마자 느낌이 좋았다”고 했다.

이상혁은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2m35를 넘어 4위에 올랐다. 한국 육상 트랙 앤드 필드 사상 최고 성적. 역대 올림픽에서 2m35를 넘고 메달을 못한 선수는 이상혁이 유일했다는 점에서 불운했다. 그러나 그때의 아쉬움을 메달을 향한 집념으로 바꿨다. 이상혁은 “지금 생각해보니 머리를 잘 자른 것 같다”며 “내 기록(2m36) 이상 뛰려는 생각으로 파리에 왔다. 시상대 꼭대기에 올라 애국가를 울려보고 싶다”고 했다. **파라-김효경 기자**



머리를 짧게 깎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이상혁이 7일(한국시간) 육상 남자 높이뛰기 예선 2차 시기에서 2.27m를 넘어 2회 연속 결선에 진출한 뒤 밝게 웃고 있다. **파라-김성룡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licia: Mom, can Stacey stay over tonight?
앨리샤: 엄마 스테이스가 와서 자고 가도 돼요?

Karen: Not tonight.

캐런: 오늘은 안돼.

Alicia: Come on Mom. If you let her we'll help you make dinner and we'll wash the dishes.

앨리샤: 왜요 엄마. 허락해주시면 저녁 만드는 것도 돕고 우리가 설거지도 할게요.

Karen: Nothing doing; not during the week.

캐런: 안돼 주중에는.

Alicia: Let's talk it over before you make a decision.
앨리샤: 결정하기 전에 좀더 의논해보요 우리.

Karen: There will be no discussion. The answer is no!

캐런: 의논할 것 없다. 답은 안된다는 거야!

Alicia: I really want her to Mom. It's really important.

앨리샤: 엄마 난 정말 초대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예요.

Karen: The rule is that no one can spend the night during the week.

talk (something) over: (중요한 결정 등 전에) ~와 잘 의논해보다

(Karen is talking to her daughter...)

(캐런이 딸과 얘기하고 있다...)

캐런: 규정은 주중에 아무도 집에 와서 자고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야.

Alicia: That's why I don't have any friends.

앨리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는 거예요.

Karen: If it's that important she can stay over on Saturday.

캐런: 그렇게 중요하면 토요일 저녁에 와서 자고 가면 되지.

기억할만한 표현

▶ stay over: ~의 집에서 묵다/밤을 보내다

"If she's staying over tonight you'd better clean your room." (오늘 저녁에 개가 와서 자고 갈 거면 넌 네방을 청소해야 한다.)

▶ nothing doing: 안됩니다

"Nothing doing I'm not lending you any money." (안돼요 전 당신한테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 spend the night: (~에서) 밤을 보내다

"I spent the night at the airport because all flights were delayed." (비행기 운항이 전부 취소되서 전 공항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가로열쇠

(2)사람이 겨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작고 초라한 집. 숲속의 ~ (4)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성년이 된 남녀가 짝지어 사는 것은 ~의 섭리이다 (6)남에게 음식 따위를 구걸하여 얻어먹음 (8)군대의 양식. 그들은 적군의 ~이 다하기를 기다렸다 (9)쓰레기나 재활용품 따위를 종류별로 나누어 거두어 감 (11)집의 위쪽을 덮어씌운 부분. 눈이 온다, 온 세상을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게 덮는다. 산과 들과 ~ 위에도 (12)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나 자갈 따위의 재료 (13)물고기의 배 부분. 한복의 소매 아래쪽으로 물고기의 배처럼 둥글고 볼록하게 나온 부분 (14)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씌 (15)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곳 (16)일이 매우 더디어 잘 진척되지 않음 (20)땅속에 묻어 두어 밝으면 터지는 폭약 (21)말밭 (22)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모질게 다루면 해를 입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말 (24)화가 자신이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

세로열쇠

(1)책을 읽음. 가을은 ~의 계절이다 (2)무릎 관절 안쪽의 오목한 부분. 김 노인은 돈이라면 ~을 못 쓴다 (3)탁주. 맑은술을 따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러 짠 술. 알코올 성분이 적으며 맛이 텅텅하다 (4)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 (5)소의 코뚜레나 말의 재갈에 잡아매어, 물거나 부릴 때 손에 잡고 끄는 줄 (7)식용으로 먹는 물 (9)액체를 뿜어내는 기구 (10)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 탈것을 타고 다니는 데에 드는 비용 (12)물기 많은 음식을 겉면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물질 (13)큰 물을 뒤에 두고 치는 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으므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게 된다 (14)주머니 속의 송곳.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 (17)일하는 데 거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전화가 불통이라서 업무에 ~이 있다 (18)부인과 여자. 성숙한 여자와 결혼한 여자 (19)허리가 가늘고 잘록한 통의 양쪽에 가죽을 붙인 국악 타악기 (22)어렵고 궁한 상태 (23)형제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스도쿠

		5		6					8	
2	1							4	6	
7		8	3					5		
3				5	9	2			8	
9			6					3	4	5
			5			6	3	9		
5							8		1	9
				9				7		
				7					2	4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문제가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2	8	5	3	7	1	6	9
3	5	7	9	1	6	2	4	8
6	1	9	8	4	2	7	3	5
2	7	6	3	9	4	5	8	1
5	4	3	7	8	1	9	2	6
9	8	1	2	6	5	4	7	3
1	6	5	4	2	3	8	9	7
7	9	4	6	5	8	3	1	2
8	3	2	1	7	9	6	5	4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범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8월 스페셜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플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선천성 허약체질, 월경이상, 만성피로, 두통, 어지러움, 체력저하, 무력감

검요근 침향 녹용단
\$430 \$199.99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30 \$159.99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최고집, 광동의 기술과 참향이 만나다
20% Sale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함양여주환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당뇨, 통풍, 콜레스테롤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위건강엔 마스크
FromBIO

레벤플러스
코팅식이섬유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Nutridom Collagen
캐나다산 마린콜라겐
저분자 고급 피쉬 콜라겐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플러스 항병 공짜

이름 키즈10
키 10배 키우기
이름 황성주생식
독소배출/다이어트/혈액정화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플러스
3+1 스페셜
1oz \$40
4oz \$120
프로플러스 스프레이 프로플러스 알콜프리 프로플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공짜선물이 팡 팡
향풍정 홍삼
국내최고 사포닌 8mg
풍기 홍삼액 골드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 기관지 보호를 위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은 맛있는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문경 오미자청
토종 오미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오미자만을 전통 발효로 진하게
혈액순환, 해독, 피로회복

유기농 국화차
향으로 맛으로 눈으로 즐기세요!
유기농으로 키운 명품 수제차
불면증, 신경안정, 눈 건강, 피로회복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유기농 CBD 통증 크림
근육, 신경, 관절 통증에 최고
관절염 통증과 붓기에 도움
천연 성분으로 안전한 통증 크림
순도 1000 / 2000mg

함수면 CBD + CBN 젤리
더이상 밤에 뒤척이지 마세요!
수면을 촉진시키는 CBN 함유중독성 없는 천연 수면제

8월
구
인
광
고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8월 8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판료가 1개월 \$20 유로 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 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판과 서비 스 해드립니다. 생활안내 광고를 애용해 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원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력있는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 ~ 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 시간: 주 48 ~ 52시간
-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싱글/타운방렌트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픽업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구함! ▶240-246-4477

기타

픽업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차정비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밀 사펜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사위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펜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속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버지니아 지역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심원섭 회계법인에서 일할 회계직원 구합니다. (1)Manager/5-7yrs experience. CPA Required. (2)Sr. Accountant /3-5yrs experience. (3)Admin-Excel, Data Entry and Bilingual skills Compensation: Salary + Benefits msim@michaelsimcpa.com

애난델.시원한 사무실서 파.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토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작'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중앙일보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제과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야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스킨
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다가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다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다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매케닉, 준매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뷰어 /-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가능
973-997 3012

기타 구인/구직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처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 화2, 유포(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3,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처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방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싱글홈 지하 렌트 ₩아웃 \$21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공개채용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편집 디자인**
-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 자격 : - 신입 및 경력
-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근무 혜택 : 회사 내규에 따름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828.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8월 8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위, 와쉬어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개인집방 렌트
화장실/입구별도 9/1일 입주가능
2. 타이슨지역 개인집 지하방
703-395-4380

▶▶첼틀리 다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
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룸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 화장실/사위/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홈디포 근처 방 렌트 유포
703-598-5719

아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뒤 지하방/유포
703-887-517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리에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윗층큰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룸2개, 라센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
의원, 네일,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총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원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q.ft.,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제외한 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kout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가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 4 화 3, 1/2
▶703-768-1240

미셸 & 케빈 신 부동산
건물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샤핑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703-395-3128 / 571-243-5797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카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571-421-0863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하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펫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가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덱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득/가스검사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사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중앙유리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
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구인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석제공(결여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달리베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최신의 정보, 다양한 리스팅, 최고의 광고효과
중앙안내광고의 자랑입니다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급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게재
All about US Life!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차콜온돌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이 없이 용자상담형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율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면
최종상상
Up to 40%
헛상상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제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술제지 최고급)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2,000개 / Box)

213.985.4200 DOKDOSUPPLY.COM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독점 FAIRFAX VA **타운홈**

방3, 화 2½, 업데이트된 부엌, 밝고 환한집, 새페인트, 나무마루, NEW DECK, 워아웃베이스먼트 **\$600,000**



Contract

독점 ANNANDALE VA **콘도**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375,000**



독점 RESTON VA **타운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479,9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Contract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79,9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